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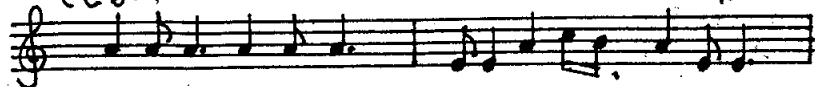
동당에 너들

자진모리
(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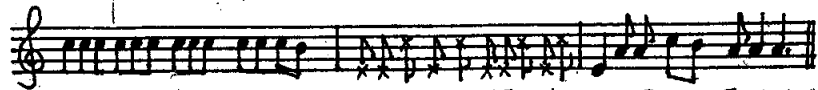


등당등등등등 등기등당에 등당등 등당에이다-등당에이다-등기등당에등당등

(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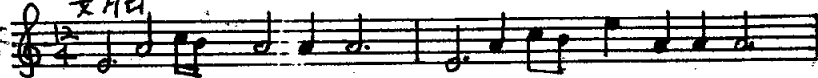


1. 숨 버신 숨 버신 외양 목에- 숨 버신
2. 숨 버신 숨 버신 외양 목에- 숨 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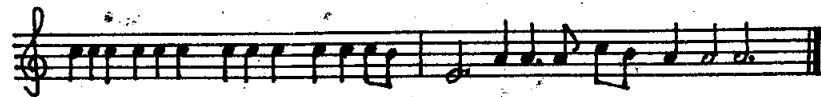


비영씨 줄려고 해 따라왔더니 어느 다녔이 다돌리잖나 등기등당에 등당등
신을 줄 모르면 남이나 주지- 신엿다 벗어내부섯집만와 등기등당에 등당등

곳거리



3.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갔더니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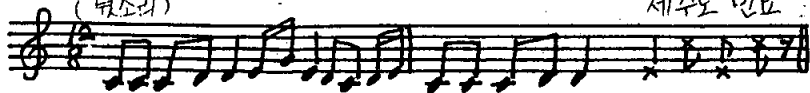


모진놈 만나서 들배개 베었네- 등기등당에- 등당등

이어도 사나 ✓

굿거리
(뒤소리)

제주도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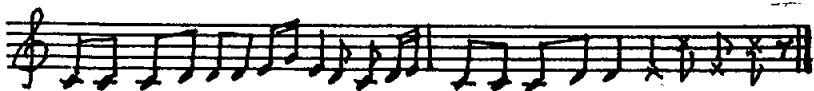


이어도 사나 - - - - - 이어도 사나 으쌰으쌰

(앞소리)



물로야 뱅뱅 - - - - 돌아진 섬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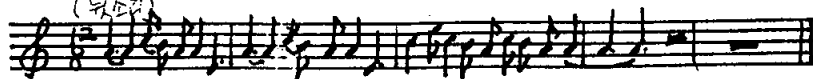
먹으 나 굶으 나아 - - - - 물질을 하여 으쌰으쌰

(앞소리)

- 우리 배는 - 소남배요 -
- 남의 배의 아아아 - 썩대남배라 으쌰으쌰
- 우리 어멈 - 날 날을 적에 -
- 어느 바닷에 아아아 - 미역국 먹어 으쌰으쌰
- 성님 성님 - 사 존 성님 -
- 지집 살이가 아아아 - 어떨습디깁 으쌰으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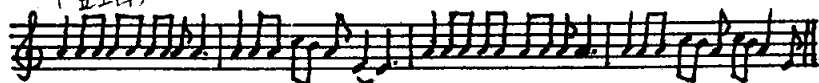
액 맥이 타령 ✓

자진모리
(뒷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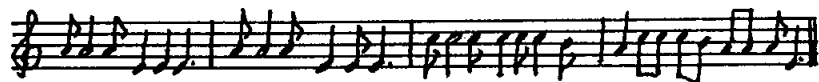


어- 루액이야 어- 루액이야 더 기영자액이 더구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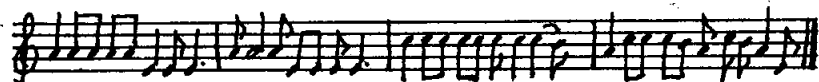
(앞소리)



1. 정월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사월에 막고 - 삼월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단오에 다 막아낸다
2. 오월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팔월에 막고 - 칠월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귀월에 다 막아낸다
3. 구월귀월에 드는 액은十一月모내에 막고 -十一月모내에 드는 액은 등지달에 다 막아낸다



4. 정월월이달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읍살달 - 내내 돌아 가더라도



일년하고도 열두달 만복은 배성에게 잡귀잡신은 몰아온 - 만해위전은 비움니다

돈 타령

(양산도)



돈- 돈 돈 돈에 - 돈돈 악마의 금- 전 -
 들이 들이 사랑 - 허다 못 살겠 거- 든 -
 나- 는 는 죽 - 어서 화 초가 되- 고 -
 내년 삼 월 춘 남- 월에 꽃 피고 시가을 때 -



갑들이 하- 고 갑순이 하- 고 서로 만- 나 - 서 서
 락- 고 푸- 른 한 강수- 에 풍뎡빠- 저- 서
 너- 는 죽- 어 월 월- 나- 는 벌나비- 되- 어



달- 신들-에 안기 거- 드 난 줄아소- 서



새야 새야



1.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노청 두발	에수 앞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노청 두발	울고간	다다
2.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부지	않은새야	다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부지	때맞는새야	다다
3.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노청 두발	않은새야	외다
아버지의	파랗새보소	노청 두발	날이	외다
4.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노청 두발	날이	외다
솔 앞	푸릇 푸릇	노청 두발	날이	외다
대님	푸릇 푸릇	노청 두발	날이	외다



(詩)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의 남의 땅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다 온 것 같지를 알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땅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자욱도 없디마라 옷다락을 흔들고
종달이는 울다리 넘어 아가씨 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달 다란 보리 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머리조차 가쁜하다
흔다라도 가볍게 나가다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정면이 달려는 노래를 하고
제혼다 어깨춤만 주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쁨을 바를 아가
지님 매던 그들이라도 보고보다.
지금의 남의 땅 배앗긴 들에는
봄이 온 것이다.

이 낭 하하

선 구 자



1 일- 송전 투른 줄무 활- 이 활이 간- 어 드
 2 용- 두레 : 불 기세 방- 태 노기 이- 립 때
 3 용- 주사 간 태 품의 비- 암 산의 울- 려 때



한- 줄 가 해란 갈은 찬- 년 두고 흐- 른 다
 뜻- 깊은 흥분 교예 달- 빛 고이 비- 칩 다
 사- 나이 큰은 마음 갈- 이 세겨 두- 었 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 리 던 선 구 자
 이역 하를 바라보며 활 을 보 던 신 구 자
 조국- 을 갖 겠 노라 맹 세 하 면 언- 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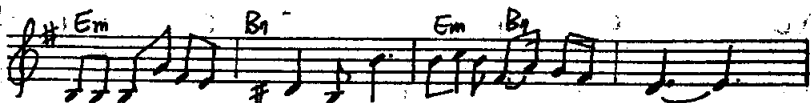
지금은 어느곳 데 - 거- 친 품이 간 었 나

Handwritten signature

러시아 농민가



1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형제가 있-었네-
 2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농부가 있-었네-
 3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농노가 있-었네-



힘약한 세상을 만-나 농부가 되-었구 나-
 약독한 지주를 만-나 농노가 되-었구 나-
 약독한 지주와 싸우-는 투사가 되-었구 나-



힘약한 세상을 만-나 농부가 되-었구 나-
 약독한 지주를 만-나 농노가 되-었구 나-
 약독한 지주와 싸우-는 투사가 되-었구 나-

11 가난한 흑바다에 태어난 민주주의 선군네
 약독한 지주와 싸우는 투사가 되-었구나
 억압적인 미제와 싸우는 혁명가 되-었구나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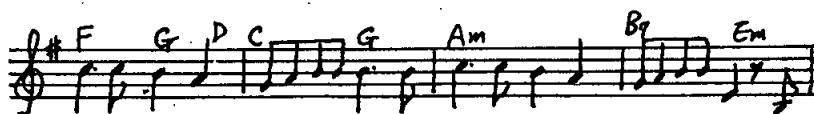
기 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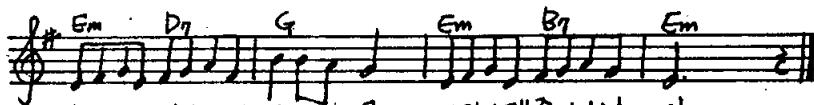
1. 한 고개 넘어 또 넘어로 보인다 한 조각 구름 속에 잠긴 둥근 달 그
 2. 한 포기 풀이 바람에 흩날리듯 한 줄기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수



따리 한 달 밝아 올 밤의 적막이 드 높이자 광갈대밭에 드리우는데 기
 많은 목숨 앓아 버린 종단 자욱이 산 허리를 수놓아 준 채 말이 없는데 기



리 기 한 때 줄지어 난다 처 럼 기울며 줄지어 난다 그
 리 기 한 때 줄지어 난다 처 럼 기울며 줄지어 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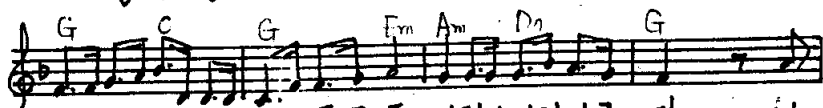
슬픈 추억 지낸 채 저 산 너머 로 기러기 떼 줄지어 난 다
 슬픈 추억 지낸 채 저 산 너머 로 기러기 떼 줄지어 난 다

신 독립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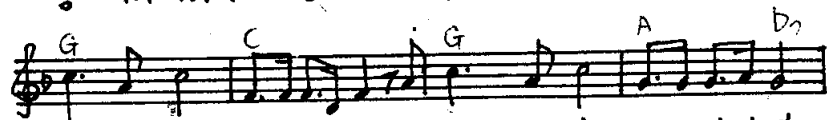
2/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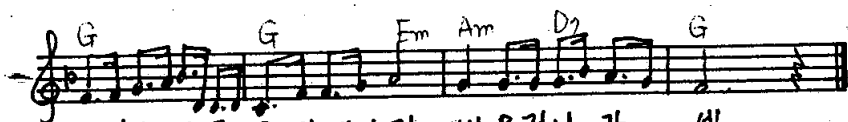
신대한국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 - 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순가 우리 틀이 약하다고 낙심할 순가
 너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거든 독립군의 혼령이 되니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필이 너와 나로 다 나
 정 - 의의 날엔 같이 비키는 곳에 이같이 너와 나로 다
 동 - 지여 너와 나의 소원 아나냐 빛 내어 너와 나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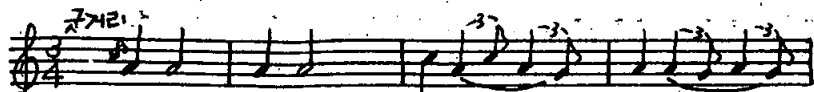


가 나가 싸우러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을 울릴 때까지 싸우러나 가 - 세

광복군 석탄가



석탄 백탄 타는 데
 이 내 가 승 타는 데
 서 울 강 안 타는 데



연기만 - 떨 - 떨 나고 - 요
 연기도 - 떨 - 떨 안나 - 네
 한강의 - 떨 - 떨 고 려 - 만
 무양 - 떨 - 떨 프 러 - 나



데 헤-야 데 헤 야 - 어여-루-난다



되다... 라... 해방의 - 불길 - 이 타오-르-다

야 낭



거센바람북만주 고향은 먼데 꿈키운 내 젊음 어데로 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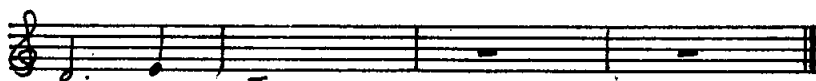
피로물든 광야의 말 울음-소리 내 젊음 내야방 어데로-갔나



아 - 아 뜨거운 피 타-는 가슴



달렘길 없- 네 감을길 없 네 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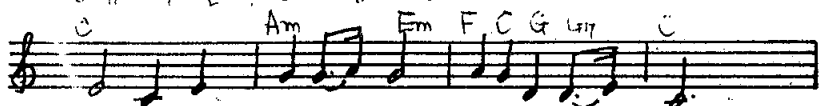


길 없 네

해방가



1. 어 들 고 과 로 러 라 밤이 깊 더 니
 2. 어 들 야 물 리 가 라 현 해 탄 건 니
 3. 유 구 한 오 천 년 우리 의 역 사



산 천 리 이 강산 에 먼 동이 틈 다
 눈 물 아 한 숨 아 너 희 도 합 개
 앞으 르 도 억 만 년 을 더욱 빛 내 리



동 포 여 가 림 라 고 알 어 나 거 라 산 넘 고 다 건 너 태 평 양 까 지
 동 포 여 두 손 모 아 민 세 부 르 자 광 막 한 시 베 키 아 별 환 을 넘 이
 동 포 여 어깨 걸 고 좁 게 나 가 자 역 늘 리 운 우리 민 족 해 방 을 위 해



아 아 각 유 의 가 유 의 종 이 물 린 다
 아 아 해 방 의 해 방 의 깃 발 날 린 다
 아 아 투 쟁 의 투 쟁 의 이 몸 바 치 리



2부



떠다니냐

철새도 아닌데
뫼귀름도 아닌데
일찌기 제 먹을것 찾아
노오란 고향길 눈물 적시며
서울로 서울로 떠나왔제

철거덕 첫소리가 귀에 익을 때쯤
세 끼 식권비와 매점 외상값 제하고 난
몇 푼 박봉이 나를 밀어
정들 만 하면 시발서가 등을 떠밀어
이 공단 작 공장 떠밀려 다녔제

여기나 저기나 목메인 기름밥은 미완가전데
한 곳에 정붙여 자국이 있자 해도
왜 이리도 떠밀고 내 차는게 많으나
아젠 옷가방 하나, 미불보따리 사매 들고
벌건대도를 죄인처럼 헤매아기엔 잔절머리나,
낫설은 열줄들과 냉대를 가슴에 안기엔
몸서리쳐 지는데
또다시 떠나야 하나

눈을 들면 미소짓는 달님이 얼굴들
내 손때 묻은 가계를 잡고 열심히 안하고
일한 만큼. 찾아들고, 사람 대접 받는
그런 일터를 꿈꾸는데
아 이전 떠날수 없어
이젠 더이상 떠다닐 수 없어
이리 저리 뿌리째 떼밀려 다신
지나온 세월은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야
실은 눈물의 밤뿐이야
꿈은 목신뿐이야

또다시 나를 팽개치는
이따위 해고통지서에 꼬꾸라질 수 없어
철새도 아닌데, 뜯구름도 아닌데
이젠, 이젠 뿌리치고
내발로 내 자릴 살거야
당당하게 당당하게 맞서며
마땅히 찾아야할 내 자리를 찾아서
이젠 다시 팽개쳐질 수 없는
꼭 마주잡은
이 거칠고 어린,
뜨겁고 힘찬 손들을
결코 놓지 않을거야.

친구

김민기 작사·작곡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친구" (Friend) in G major, 4/4 time. The score consists of ten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and guitar chord diagrams.

Staff 1: G D, DM7 Gmaj7, D7 G7, CG. Lyrics: 정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 / 눈 앞에 보이는 수 많은 모습 들 그

Staff 2: G D, Em Bm, Em Am, A E, D7 A7. Lyrics: 다가갈 이 고이 다가 물이 요 그 / 모두 진정 이 라- 우겨 말하 면 어

Staff 3: G D, DM7 Gmaj7, G7, C Fm. Lyrics: 깊은 바닷 속 에 고 모히 잠 기 면 무 / 느누구 하 나 가- 톨로 일 어 나 아

Staff 4: Cm Gm, G D, Em, Am, D7, G D. Lyrics: 잊이 산 것 이 표 부 잊이 죽 앓 소 / 니라고 말 할 사 람 누가 앓 개 소 는

Staff 5: G D, F#m C#, E B, Am Em, D7 A7. Lyrics: 앞에 떠 오 는 친 구 의 모 습 들

Staff 6: G D, G7 D7, C# F# E B, Am Em, Am Em, D7 A7. Lyrics: 날리는 꽃 앞 위 에 어 린 거 리 오 저

Staff 7: G D, F#m C#, E B, Am Em, D7 Am. Lyrics: 멀리 들 리 는 친 구 의 음 성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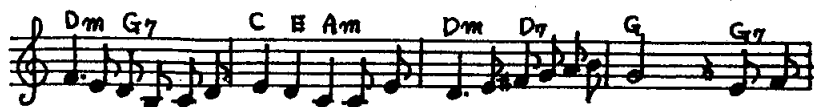
Staff 8: G D, Dm6, E B, Am Em, D7 A7, G D. Lyrics: 리는 기 차 바 퀘 가 대 답 하 러 나

작은 연못

김민기 작사·작곡



깊은 산 오솔길 옆 가고 마한 연못 에 ; 지금
푸르 던 나무 앞 이 한말 두말 떨어 져 연못



은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날지않지만 먼 옛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물에 가라앉으면 집 잃



날 이 연 못 맨 예쁜 봉 어 두 마 리 날고
은 꽃 사슴 이 산 속 을 헤메 다 가 연못



있었다고 전해 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 시 잠들게 되죠



어느 맑은 여름 날 연못 속 에 봉 어 두 마 리 서로
래는 처산 에 지 고 저녁 산 은 고-요한 데 산허

배워함마 리는 물 위 에 떠 오 르 고 그 들은
 리로 무당벌 레 하나 휘익 지나 간 후 에 감 은

날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물만고 - 인 재 끝없 는 세월 속 을 말 없

속에는 아무 것도 날 수 없게 되었 조 같은
 이 몸것 무로 해 배 다 수 많 은 제 짙은 맛 조 같은

산 오 솔 길 옆 - 자 고 마 한 연못 에 . 지금

은 더 러 운 물만 구 이 고 아 무 것 도 날 지 않 조

꽃피우는 아이

김민기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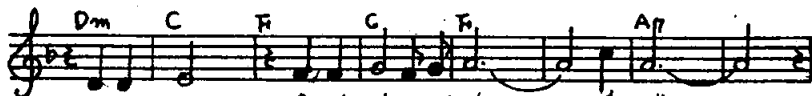
무궁화 꽃을 - 피우는 아이 -
꽃은 시들어 - 땅에 떨어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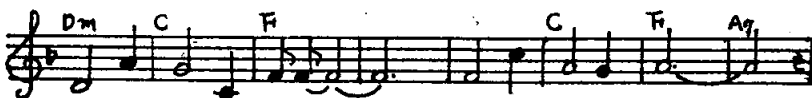
이른 아침 꽃밭에 물도 주 - 았네 -
꽃피우던 아이도 알아누 - 았네 -



날이 갈수록 - 꽃은 시들어 -
누가 망쳤을까 - 아가의 꽃밭 -



꽃밭에 울먹인 아이였 - 았네 -
누가 다시 또 꽃피우 - 겠나 -



무궁화 꽃피워 꽃밭 가득 키



가난한 아이의 손길처럼 -

아하 누가 그렇게

김민기 작사 작곡

Em A D Bm Em G A A7

1. 아
2. 아
3. 아

아 - 가 - 가 - 가
 아 - 가 - 가 - 가
 아 - 가 - 가 - 가

푸른 - 들 - 보 - 여 - 주면 - 좋 - 게 - 너
 나의 - 손 - 을 - 얹 - 어 - 주면 - 좋 - 게 - 너
 저 들 - 앞 - 의 - 별 - 이 - 밝 - 게 - 너

아 아 아

D Bm F# Bm Em A7 D

아 - 가 - 은 - 수 - 도 - 보 - 여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너 - 의 - 손 - 을 - 얹 - 어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저 - 들 - 앞 - 의 - 별 - 이 - 밝 - 게 - 너

아 아 아

Em A7 D F# Bm Em Em7 A7

별 - 이 - 밝 - 게 - 너
 이 - 별 - 이 - 밝 - 게 - 너
 아 - 가 - 은 - 수 - 도 - 보 - 여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너 - 의 - 손 - 을 - 얹 - 어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저 - 들 - 앞 - 의 - 별 - 이 - 밝 - 게 - 너

아 아 아

D Bm F# Bm Em A7 D

아 - 가 - 은 - 수 - 도 - 보 - 여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너 - 의 - 손 - 을 - 얹 - 어 - 주 - 면 - 좋 - 게 - 너
 아 - 가 - 저 - 들 - 앞 - 의 - 별 - 이 - 밝 - 게 - 너

아 아 아

두리번 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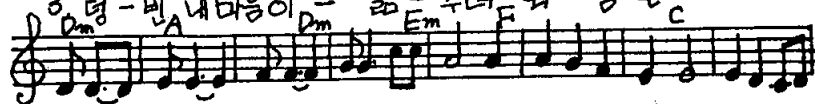
김민기 작사·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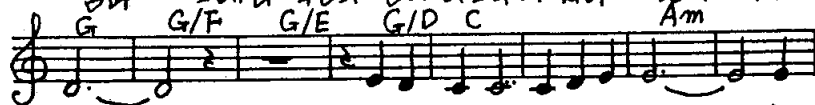
1. 햇빛은 내-몸이 - 뒤안 에서 떠는것 은 -

2. 부너진 내-몸이 - 늘- 리어 우는것 은 -

3. 령-빈 내마음이 - 춤- 주려 외-침 은 -



사랑과 마음과 믿음의 참을너로 부터 가르쳐 받지 못한연이
 눈물과 땀과-싸움의 참이 너로 부터 가리워 아지 못한연이
 꿈과 - 노래와 죽음의 참이 너로 부터 사라져 잃어 버린연이



나 - 하여 나는 바람부는 - 러



음을 알고따서 - 두 리 번 - 거린



다 - - - 말없이 찾아온 친구 겸-에서 -



- - - 교정 뒤안에 향무 지에서 -

한 강

한강이 가슴을 연다
어원 어미의 가슴처럼
주름진 강심이 소리없이 열려 흐른다.

열어붙은 겨울 속으로
숨죽이며 흐느낌으로 흐르던
눈발 강물

봄은 열었는데
멍든 가슴, 지지인 노동에
탄식하며 탄식하며 쓰러져
물아치는 찬 바람에
다시 아끼찬 이를 물며 열어서 흐르는
사랑이여, 모든 생명이여

강물은 흐르고
터러움과 오욕에 뒤섞여
거칠게 한강은 흐르고
살얼음을 뒤척이며
어두운 겨울 속으로
봄을 부르며
봄을 부르며
소리없이 열려 흐르는
눈물이여 강물이여

서울로 가는길

김민기 작사작곡

C G C

우아-알-음
 리-정-인
 부-모-병-
 이-가-면-창-
 약-은-누-구-
 어-와-아-
 여-서-
 - - -

C F Dm G

누-을-애-내
 고-과-마-라
 다-고-
 긴-지-삼-년-
 가-는-까-치-
 나-저-는-거-
 볼-때-가-
 어-야-야-
 나-지-
 - - -

Dm G G/A E Am Am/G

뒤-나-들-걸
 간-면-아-
 앞-이-
 Dm
 의-
 약-초-
 찾-박-
 아-와-
 리-부-
 느-나-
 티-로-
 무-
 - - -

D Dm G7

모-나-개-어-드-렸-지
 우-리-가-보-워-로-
 리-전-환-
 드-면-드-면-
 을-변-경-
 하-라-
 - - -

C G C

나-면-나-면-누-가-할-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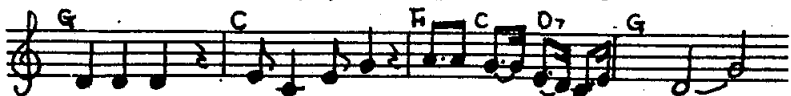
늙은 투사의 노래



1. 나- 태어난 이 강산에 투사가- 되 어
 2. 아- 들- 아내 딸들 아 서러워- 마 라
 3. 내- 평- 생 소원- 이 무엇 이- 더 나



꼭- 피고 늘 내리기 어- 연- 삼- 섬 년
 너희 들은 자 랑스런 투 사의 아 들이 다
 우리 손주 손 목 잡고 금 강산 구렁 일 세



무엇 을 하였 느냐 무엇 을- 바라- 나
 좋은 웃 입 고 프 나 맛 난 거- 먹 고 프- 나
 꽃 피 어 만 발 하 고 활 짝 갠- 그- 날- 을



나- 죽어 이 강산에 물- 기면 그 만 이 지
 아- 서라 말 아- 라 투사 아 들 너- 로 다
 기다 리고 기 다 리 다 이 내 청 춘 다- 간 다



아 다 N 못 을 흘 리 간 내- 청 춘 -



푸 림 웃 에 실 려- 간 꽃 다운 이 내 청 춘

기 지 촌

김민기 작사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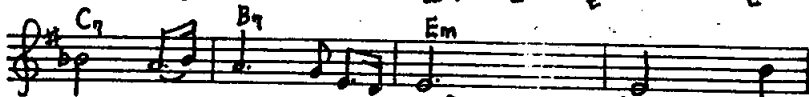
1. 서산마루에 시-들어 지-는 지
 2. 가로등아래 장-남의 노-랜 아무
 3. 밤-거리엔 낮-선-사람 들 며



쳐 버린 항 - 혼-이
 한 태도 들 리지않고
 들 면서 지- 나가 고



창에드 리 운 남은 커튼 위- 에 희
 자동차 소 리 개-질는 소 리 에 뒤
 짙은 화 장 의 젊 은 여 인 네 들 이 길



미 하게 넘 길거리 네
 었 여-름 어 지- 네
 가 에-지 성 대- 네

C D Em Em7 Em6

두 음에 취 해버린 작 은방안 에 무
 제 소리 내 컷전을 스 치더니 만 갖
 별 들이 아 - 나들 흘 어지더니 앓

C D G B7

손 불을 밤 - 혀들 까 -
 밖 으로 새 - 어 나 가 -
 끝 으로 달 - 아 - 나 -

Em Em7 Em6 Am C9 Em

오늘밤 에 는 무슨꿈을 꿀- 까 아
 오늘밤 에 는 무슨꿈을 꿀- 까 아
 오늘밤 에 는 무슨꿈을 꿀- 까 아

C7 B7

무 것도 보 이지 않 네 -
 무 것도 들 리지 않 네 -
 무 것도 남 지않 았 네 -

누나의 얼굴

윤동주작사 김영동작곡



1.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2. 언니의 얼굴은 반-달- 얼굴



해가- 금방뜨면 공장에 간- 다-
해가- 금방지면 공장에 간- 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반-달- 얼굴은 언니의- 얼굴



얼굴이 숙어 들어 집으로- - 온다
이슬에 젖어 들어 집으로- - 온다



소



김민기 작사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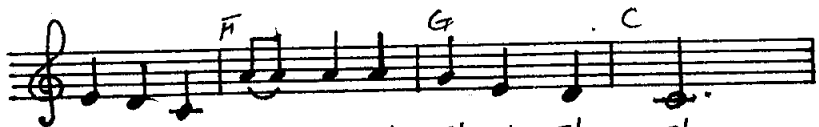
1. 저건 너 마을에 장날이- 라
2. 커다란 두 눈을 껌벅이-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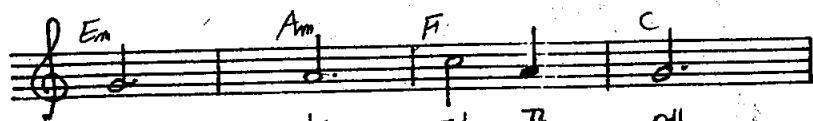
송아지 풀고서 장터 간 다
슬픈 듯 내얼굴을 바라 본 다



서울 간 내 아들 생각하- 며
뒤발에 힘주고 가기 싫- 다



송아지 풀고서 장터 간 다
자꾸만 내얼굴을 쳐다 본 다



하 소 들 야 저 잘 고평 가 에 라

Em F D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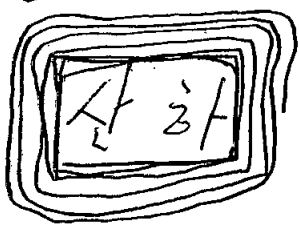
흰 구름이 흘러간 다
 소야 - 잘 가 거 라

C Am F C

어 디로 흘러 서 가는 거 - 냐
 뒤 돌아 보 - 지 말고 가 - 라

Em F G C

음 - 매 음 - 매
 매 매 매 매



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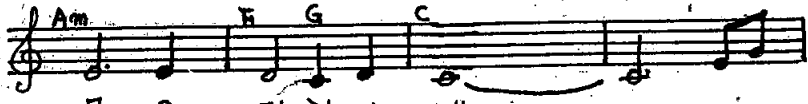
1. 겨울 가 고 봄 이 오 면 아 지
 2. 하 안 고 개 검 은 고 개 넘 어



랑 이 피 어 오 르 는 길
 가 는 아 리 랑 고 개 하



게 보 누 운 이 산 하 는 여 원
 물 타 령 웃 음 따 령 뉘 어



몸 을 뒤 척 이 네 피 고
 강 은 사 랑 노 래



지 는 네 얼 굴 에 터 질

Am F G
 듯 한 그 입술 에 - 죽-

F G C Em Am
 은 비- 가 물 아 치 면

F Dm7 G G7
 혼 자 외 로 이 - 고틀

C G F G
 도 없 는 긴- 긴 밤- 을 살아

C G7 C
 가 는 나의 산 하

무생기 얼굴

C F C

1.5. 열 - 나 람 중 - 에 서 아 - 흠 사 람 이
 2. 너 - 네 는 큰 집 에 서 네 명 이 살 지
 3. 며 칠 이 면 우 리 집 이 러 리 워 진 다
 4. 아 버 지 를 따 - 라 너 일 터 나 갓 자

Em Am F C G

내 모 습 을 보 - 너 니 손 가 락 질 해
 우 - 리 는 작 은 집 에 손 일 곱 이 산 다
 쌓 아 놓 은 행 - 복 도 무 너 지 겠 지
 처 음 잡 은 삼 자 루 가 손 이 아 파 서

C F C

그 - 녀 의 손 가 락 질 받 기 싫 지 만
 그 - 것 도 모 자 라 서 집 을 또 사 니
 오 - 늘 도 그 사 람 이 겁 주 고 갔 다
 땀 흘 리 는 아 버 지 를 바 라 보 니 까

Em A F G7 C

위 - 선 은 싫 - 다 - 거 - 것 은 싫 - 어
 너 - 네 는 집 만 아 처 중 - 겠 - 다
 가 - 없 은 우 리 엄 마 한 숨 만 외 내
 나 도 몰 래 난 - 에 서 관 물 이 난 다



못 생 긴 - 내 열 끝 -
 하 양 눈 - 내 리 는 -
 개 새 끼 - 개 새 끼 -
 하 늘 의 - 태 양 아 -



맨 처 음 부 터
 겨 울 이 오 면
 나 났 사 랑 들
 잘 난 척 마 라



못 생 긴 길 어 떠 해
 우리 집 도 하 양 지
 엄마 출 지 다 세 요
 자랑 트 려 우 깃 아 비 지



3.5.라 - 라라 라 - 라라라 - 라라 라 -



라라 라 라라 라 라라 라라 라 -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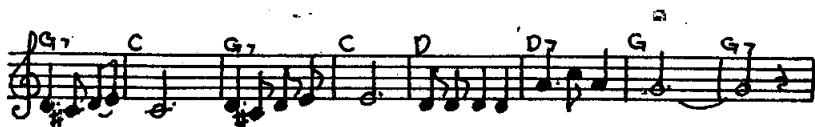
흔들작사작곡



1. 우리 에게 땅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2. 서울 가 신 우리아빠는 왜아직 안-을-까 -



을 어 머니 날아생전에 작은땅이라도있었으면 -
 우리 땅이 생겨난다면 자갈밭이라도좋-겠네 -



콩-도심고 팔-도심고 고구마도 심으려만 -
 오-늘-도 저-멀-리 기적소리 들리건만 -



소중 하고 귀중 한 우리땅은어디에 -
 갈담 날이 내 꿈 은 구름 타고떠가네 -

저부는 바람

Em B7 Em B7

1. 누 가 보 앓 울 까
 2. 누 가 들 앓 울 까
 3. 누 가 알 앓 울 까

Em Am Δ F# B7

부 는 바 - 람
 부 는 바 - 람
 아 문 (이) 마 음

Em D G Em

아 무 도 보 지 못 했 지 저
 아 무 도 들 지 못 했 지 저
 아 무 도 알 지 못 했 지 저

Em B7 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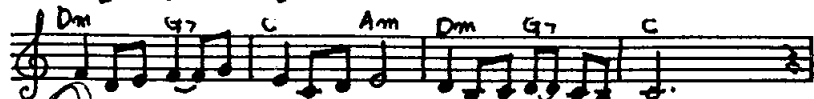
부 는 바 - 람
 부 는 바 - 람
 아 문 (이) 마 음

더

흔들 가사각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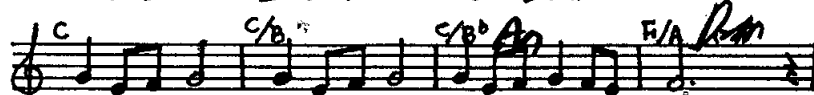
① 저산맥은 말도 없이 오천년을- 살았 네
 ②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 며



① 보진 바람-을 다 이 기 고 이-터 를 지-켜 왔 네
 머 나 먼 고향을 생각 하니 가-슴 이 문 클 하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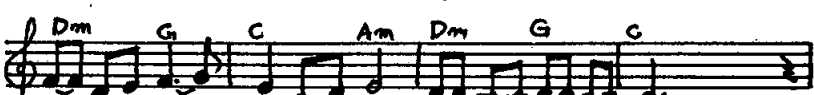
① 저장 물은 말도 없이 오천년을- 흘렸 네
 백두산에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왔는 냐



▶ 설악산을 휘 휘 돌아 동해로 접어 드 니
 얼어 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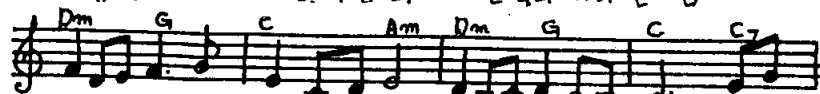
① 온 각 슬픔을 다 이 기 고 이-터 를 지-켜 왔 네
 살아왔으면- 한 번쯤은 어렸 적고 소리쳐 봐 라



▶ 아-름 다운- 이 강 산은 등-방 의 하-얀 나 라
 같이만 나 서- 큰 바 다 로 흘러 가야 움 지 않 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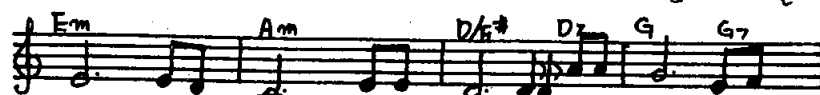
동해 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 라
태극기의 떨림과 민족의 커다란 꿈



이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누리에 빛나 라 자유
통일이여 어서 오 나라 모두가 기다리 네 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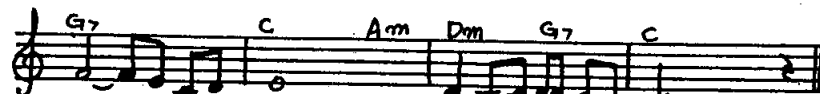
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
라 불러 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



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
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



이 오면은 모두가 배바라 우리
와 꽃내음 남천 리에 퍼져 라 그날



의 숨소리 로 이 터를 지켜나가 자
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강변에서

김민기 작사·작곡



1. 서산에 불은 채 권 리 - 고
 2. 강 건너 불공장의 굴뚝 - 연
 3. 높다란 철 - 교 앞 - 이
 4. 라라라 라라라 노 저 어 라



강 변 에 앉 아 서 쉬 노 라 면
 시 커 먼 연 기 가 피 어 오 로 고
 호 사 환 기 차 가 지 나 가 고
 열 예 서 살 순 이 가 들 아 온 다



낮 익 은 열 굴 이 하 나 - 들
 순 이 네 텅 그 란 굴 뚝 - 연 파란
 강 물 은 일 일 - 교 일 어 - 나 각은
 라 라 라 라 라 라 노 저 어 라 우리



집 으 로 들 아 온 다 - Fine
 밭 오 라 기 떠 오 른 다 -
 나 른 배 가 흔 들 린 다 -
 순 이 가 들 아 온 다 -

C G

늘 어 진 어 깨 마 다
 바 람 은 어 두 워 가
 아 이 야 불 밝 여 라

C A7 D

퀵 - 환 두 눈 마 다
 별 들 은 초 주 는 티
 백 건 에 불 밝 혀 라

G Em Bm Em

간 - 노 을 이 물 들 면 앤지
 공 장 에 나 간 순 길 이 는 왜-
 강 건 너 오 솔 길 따 라 우리

C A7 D D.C

맘 - 이 설 레 인 다
 안 돌 아 오 는 결 가
 순 이 가 돌 아 온 다

바람과 나

한 대수 작사작곡

C Am C Am C

1. 끝 끝없는바 람 저험한- 산 위로- 나뭇잎
2. 물결 건너편 에 황혼- 에 적은- 산골보

Em Dm G C Am C

나- 불어- 가 는 아 자유의바 람
다도- 아름- 다 운 아 나의남바 람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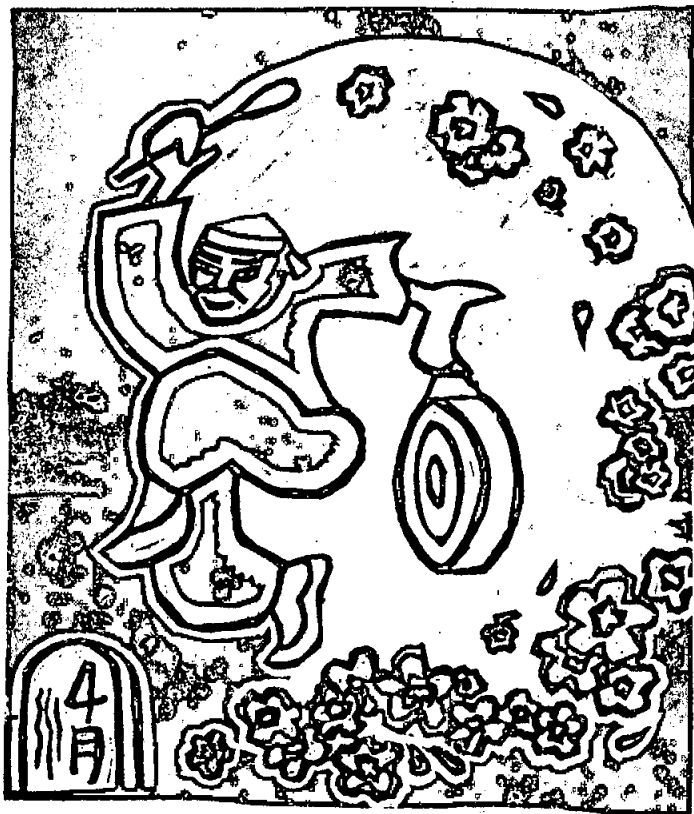
저 언덕 넘어- 물-결 같이- 춤추던 잎
무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따 라

G F G C Em Am F

무 - 명무늬- 무감- 한 님 나도- 님과
하 - 늘위로- 구름- 따 라 무뎠- 여 행

Dm7 G G7 C Am C

같은- 인생- 을 지녀볼 래
하는- 그대- 인생은 나 지녀볼 래
인생은 나





헤이 헤이 헤이 헤이 -



호우 호우 호우 호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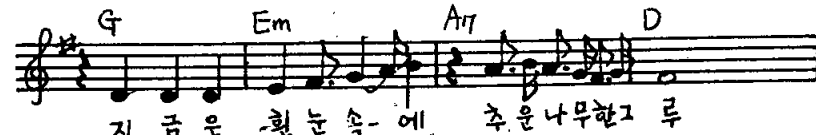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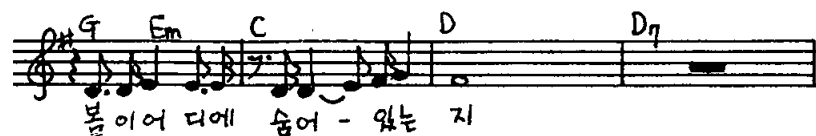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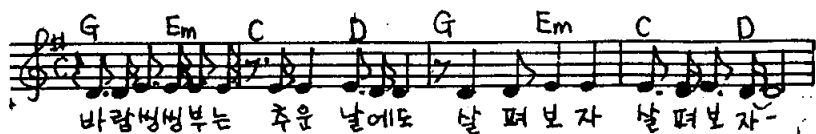


호우 호우 호우 호우 - 노래



나 볼 러보 다 -

바람 씩씩



G C D G
 나는그나무 에 게 로- 달려가고날지 만

Em B7 C
 어머니가말려요 밖은 추 - 다 -

D D7 G Em C D
 바람쌩쌩부는 추운 날에도

G Em C D G Em C
 흰눈떨떨날리는 겨울날에도 나 서 보 자 나 서 - - 보

D7 C G
 자 - - - - 너의 손 과 - 나의

F C G Bm
 손을마주잡 고 힘찬희파 람 불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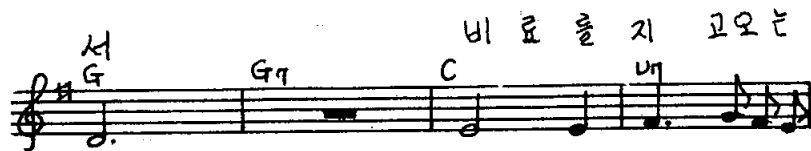
1. C
 나 - 서 보 자 - -

2. C
 나 - 서 보 자

비료지기



아 버 리 하 고 동 장 비 집 에 가



데 하 도 무 겨 워 서



눈 물 이 나 - 왔 -



네 오 - 다 - 가



쉬 는 데 아 이 들 이

C D G Em

영 구 비 료 지 고 간 다 하 네

C D7 G Em

내 가 제 비 보 고 제 비 야

Am7

비 료 저 다 우 리 집 에 갖 다 다 모 하

D D7 C A7

너 아 무 맛 도 안 한

D D7 G Gsus4

다 제 비 는 푸 른 하 늘

Gsus4 G Gm7 G7

다 구 경 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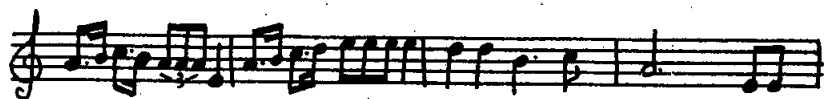
C D G

나 는 슬 픈 생 각 이 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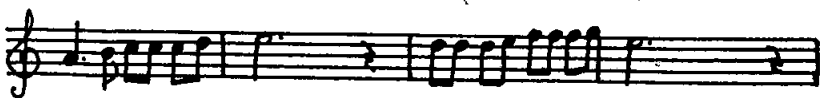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서 밤길 돌부럼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 구 나 온나



라에 물려버리는 노래 크게 입혀 부르며



이제 감귤 알았노라고 아 — 아 —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 모여있구나



까치길



기성회비 조르던놈 큰소리로야단치고 돌려보낼락- 교 길



서산너머해지면 시멘트가루떨어내요 터덜터덜오- 는 길



강소 주나관장- 목에 걸치고 갈비굽는 포장마차 지나



머 류나무 등지 깔- 는 까치따라가-는- 길

겁데기는 가라

겁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겁데기는 가라.

겁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무성만 살고

겁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겁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맛질할지니

겁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흉가슴만 남고

그, 모든 외분이는 가라.

신동엽

Dm F G
 유수나나나나 포인포인 가나나나 긴긴긴길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C Am Dm G
 영영영영 영영영영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F Dm G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C Dm G F G C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종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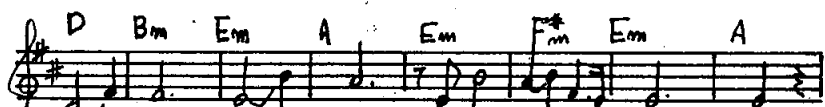
김민기 작사·작곡



라이 라이 라이 라 라이 라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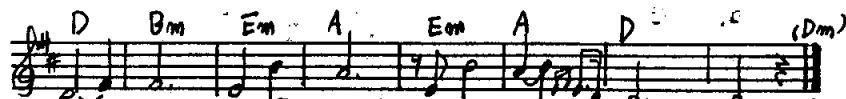
- 이 라이 라이 라 라이 라이 라



1. 종이 연 날 리 자 하늘 끝-까-지

2. 간 밤 에 어 머 니 돌아 오지 않-고

그 편 지 들 고 서 옆 집 가-보-니



내 손 이 안 닿아 도 구름 위-까-지

편 지 만 덩 이 리 니 동 여 있-는 데

아 저 씨 보 시 고 한 숨 만-쉬-네



공장의 불빛

김민기 작사작곡

C G C C7



예쁘게- 빛 나던- 불- 빛

F C C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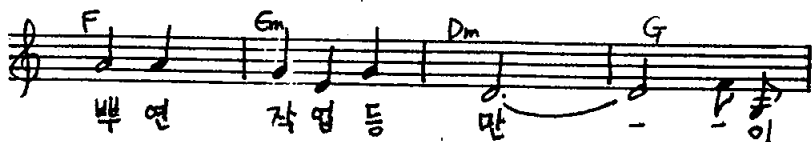
공 장 의 불 빛

F G Em Am



온 데 간 데 도 없 - 고 희

F Em Dm G



뉘 연 작 업 등 만 - - 이

C G Am

대론- - 못 돌아 가- 지

F Em Dm G

그 리 운 고 향 마 울 -

C F Fm

줍 고 지 킨 밤 - 여

C G C

가 는 - 또 다 른 고 - 향 -

이 세상 어디가에

김민기 작사작곡

F 이 세상어-딘가 에 있을 까 있을 까 평등

과 평화 넘치 는 자유의바-닷-가 큰

물결 몰아쳐온 다 너무 도가련 한우 리 손

에 손 놓치지 말 고 파도 와 막서 보아 요 이

세상어-딘가 에 있어 요 있어 요 분홍

빛 고운 꿈나 라 행복만 가득 한 나 라 하늘

빛 자동차타 고 나는 화사한 웃 입 고 잘

생긴 머-슴애 가 손짓 하는 꿈-의 나라 이

C G7 C F C
 세살아- 무데 도 없 어 요 정말 없 어- 요 날며

G C D B7 G
 시 두눈 떠봐요 밖 하늘바-라봐 요 어

C G7 C F Dm7 B7 E G7
 두운뎃-은세상 반짝 이는 작-은- 별 이

C C7 F D7 C G7 C
 밤을 지키는 우 리 힘겨운 공장-의- 밤 공 교

C G7 C F C
 운 풀개-어 나 면 아쉬운 마음 뿐 하지

G G7 C D D7 G G7
 만 이제 개어 요 온세 상이 파도와같이 큰

C G7 C F Dm7 B7 E G
 물결물아쳐 온 다 너무 도 가련 한 우 리 손

C C7 F D7 C G7 F Dm7 C
 에 손 놓치지 말 고 파도와 맞서 보 아 요

퇴근

철쭉거리던 가게소리 멈추면
이 가게 소음에 맞춰
정신없이 움직이던
우리들의 손이 일제히 멈춘다.

저녁 노을은 붉게 타고
산한 바람은
허기진 창자 속까지 파고 든다.

종일

회색 건물을 채우고 있던 우리들이
여기 저기서 밀려나온다

기름때가 가시지 않은 더부룩한 얼굴들...

나를 에워싼

이 많은 우리들도

나처럼 1,300원을 벌기 위해

잠이 채 깨기도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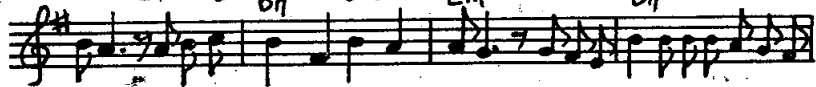
정명자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원곡: 김민환



1. 형제가 쓰 러져 가네 종칼이 가 숨을
2. 시체가 풀 어져 있네 아기는 배 고파
3. 고동과 괴 로움 속에 우리를 구 말자
4. 하나님 앞 신의 손은 죽음의 쇠 사슬



절네 평화를 못 말라 하 면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
 우네 험벗고 굶주림 속 에서
 없네 따뜻한 인정이 아 켜워
 꿈과 희망과 평화 주시 을니



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 다



금관의 예수

김민기 작사.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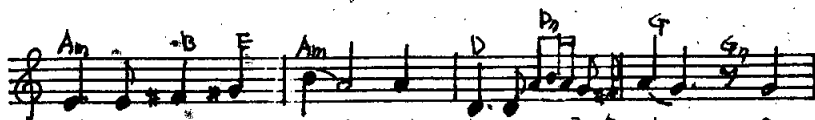
얼 어 불은 저 하늘 얼 어 불은 저 별 판 태-
아... 거리 여 외-로운 거리 여 거절



양도 빛을- 잃 어 아 캉캉한 저 난의-거리 어
당한 손 길- 들 의 아 캉캉한 저 관목의-거리 어



디 에 서 앞 나 떨 글 여 원 나 람 들 무 일
디 에 앞 을 까 천- 국 은 어 디 에 죽 음



강 아 헤 매 이 나 저 눈 저 매 마 른 손 길 - 오
저 떨 푸 른 숲 에 아 거 기 에 - 앞 을 가 - 오

C A Dm D Dm G G

주여이제는여기에 오 주여이제는여기에 오

F#m E Am E D D G G

주여이제는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C A Dm D Dm G G

주여이제는여기에 오 주여이제는여기에 오

E#m E Am F C G G

주여이제는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소서

김영희 작곡

여 잘린 하나님

(민중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여 잘린 하나님 - 우



리 기도 들으소서 - 귀머지 하나님 -



얼굴을 돌리시는 - 하 상당 - 한 하나님 - - 남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



하나님 당신이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

그루터기

한동헌 작곡



천 년을 측-어오 아름 등걸 에
 하늘을 향해 별런 푸른 가지 약
 대지를 꺾-뚫은 깊은 뿌리 약



함울로 영귀영귀 우리의 향 이-
 쇠소리로 영귀불은 우리의 피 가-
 내 일을 드리고선 바깥의 지 로-



고달픈 잠-- 깨우고 사라져오 면
 안타까운-- 열대를 붉게 익히 면
 조롱-분-- 밝히는 의방여기 에



그루터기- 가 숨-엔 험한 도없 다.
 푸르던날 어 느-새 단종 물든 다.
 뜨거-운 가슴마다 나랑 넘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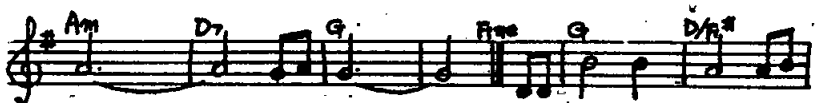
영산강



자라 리울 이 불개나 - 이 킁 킁한 이동뚝



고 - 소리 없이 손 저 어 - 울



어 - 불개나 - 자라 리 돌 아 설개



나 - 무너져 내린 선용안 고 - 어원



이 리 보듬어 - 돌아 - 나



나 - 밤마다 산마루 넘어와서 시키



땀겨 다-가아 - 두 손 내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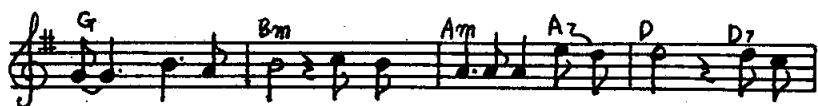


는 - 못다 한 세-을 -

군중의 합성



1. 오-랜 시련 에 햇빛은 저 높은 산위로 오르
 2. 저- 높은 산 에 언덕 넘어나는 갈래요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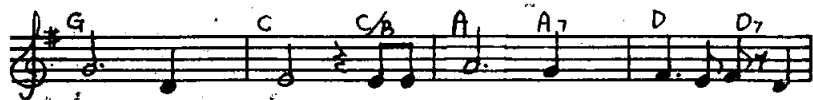
러- 애쓰 는 군중 들의 합성- 이 하늘
 몽수 음치 는 합성 을 찾아 갈래요 하늘



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산을
 만 바라-보-다 시들 어진 탐음-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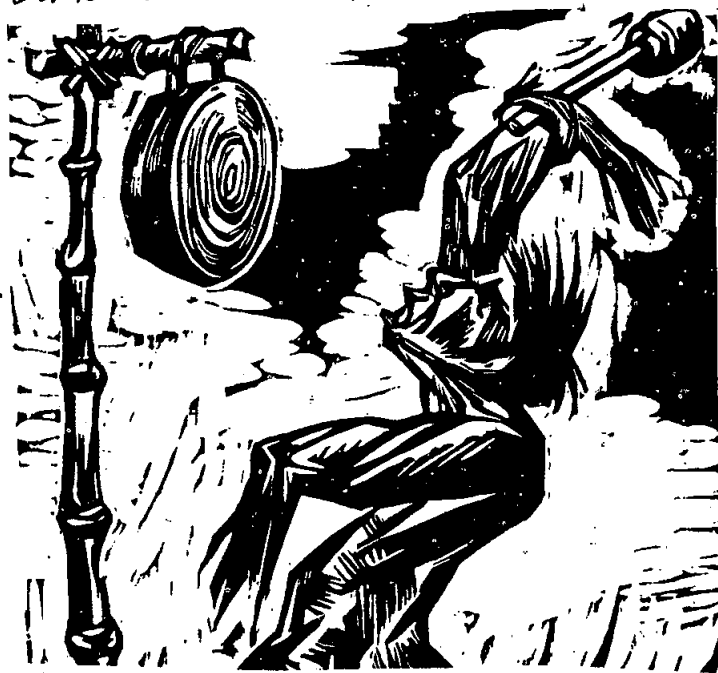
에워싼강-물-은--유- 유 리 흐르-네 하늘
 없-는 지-레와 용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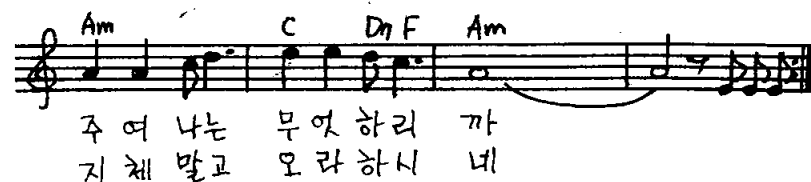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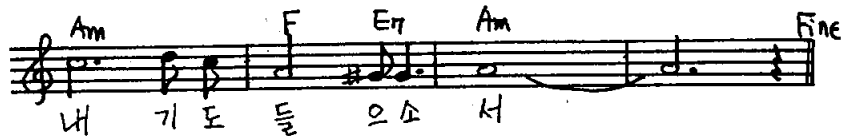
예 계 신 우리 아 버 지 니여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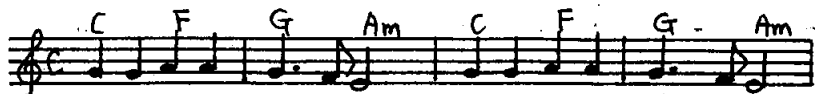
신의 뜻 이라 면 -- 하늘 끝까지 따르리 다.



미칠것 같은 이세상



우리 승리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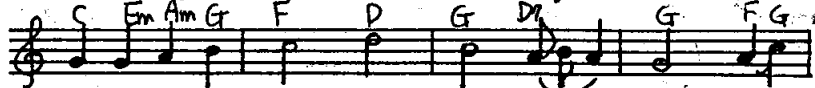
1. 우리 승리 하리라 우리 승리 하리라

2.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3. 손에 손물 짚-고 손에 손물 짚-고

4. 평화롭게 살리라 평화롭게 살리라

5. 그의 품에 거 하리 그의 품에 거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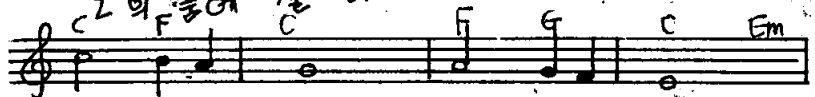
우 리 승 리 하 리 라 그 날 -- 어 오 -

두 려 움 이 없 네

힘 을 함 하 리 라

평 화 함 게 살 리

그 의 품 에 살 리



잠 맘 으 로 나 는 믿 네



우 리 승 리 하 리 라 - - -



자 유 - 잡된 평 하 - 나는
 자 유 - 잡된 평 하 - 나는



이 것 위 해 사는 가 - 불평
 이 것 위 해 살 것 네 - 무리



불 탄과 한 명 가 득 잔 이 세 상에 너는
 너 로 올 믿 는 그 런 세 상 되 다면 잡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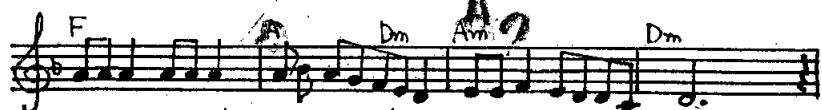


무 엇 위 해 사는 가 -
 자 유 평 하 열 것 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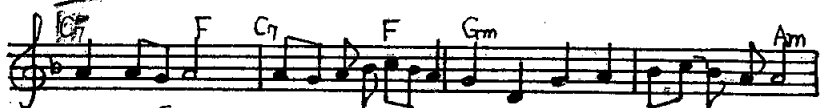
시막에 샘이넘쳐흐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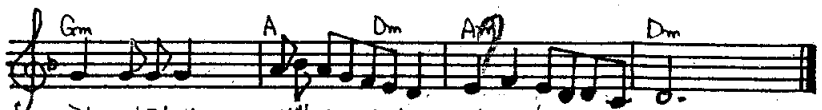
1. 사막에 샘이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피어 흥내나리라
 2. 백두산 함께올라 가리-라 금강산 같이구경 가-리-라
 3. 월출산 함께해쳐 나가리라 태평양 함께해쳐 나자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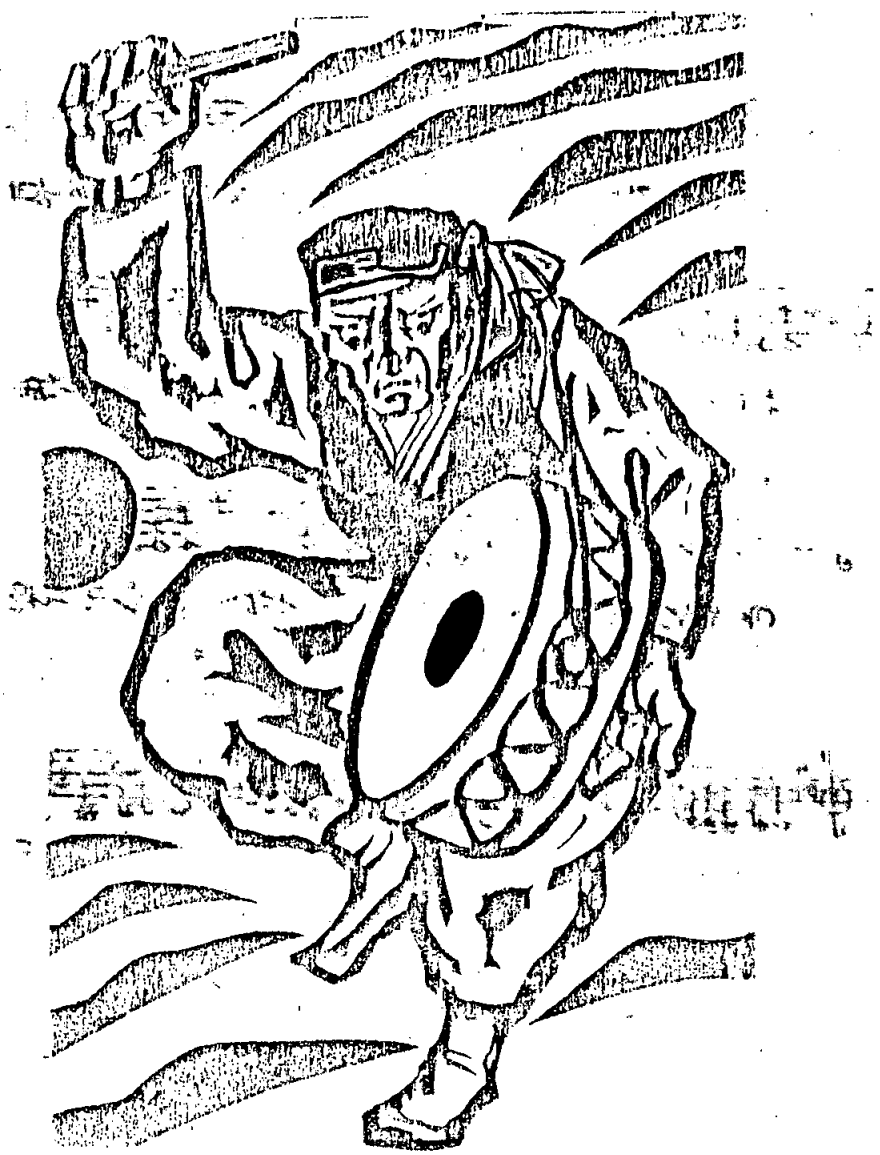
주님이 다스릴 그나라가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 리
 민중이 다스릴 그나라가되면은 민족이 통일되리 라
 정의가 샘수는 그 세계가되면은 인류가 형제되리 라



사자들이 어린양과뛰놀고 어린 이도 같이 뿔구는
 들 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가난한 자 기뻐 춤추는
 의 늘린자 자유함을 얻으며 공장에는 기쁨 넘치는



참 사랑과 기쁨의그나라가 이제 속히오리 라
 참 평화와 평등의그나라가 이제 속히오리 라
 참 평화와 평등의그나라가 이제 속히오리 라



서울길 I



간 - 다 오지 마라 간다 - 히 고개 넘어 고개 넘어 고개 넘어



팍팍한 새발길 물팔러 - 간다 언덕이 돌아오리란 언젠



야 웃음의 도화리 꽃피어 돌아 오리란 땀기름 안쓰랴



기약도 없이 간다. 오지 마라 간다 - 모질고 먼 길 네상에 날아도



분꽃이 익힐까 밀넝내가 익힐까 사뭇사뭇 덧덧무것을



꿈꾸다 눈멀지어 돌아올것을 밤이면 별빛따라 돌아올것을 간-



다 우지마라 간다- 하늘도 슬픈겨운 목마른근개념어



팍팍한 서울 길 몸달려 간- 다.

서울 길 II



흰 고개 검은 고개 목 마른 고개 남-어



딱딱한 서울 길 몸팔러간다



언제야 돌아 오리란 언제야 돌아 오리란



대기 풀 안스러운 약속도 없는 고-개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간 - 다



모질고 모 건 네상에 살아도



밤이면 꿈꾸다 돌아 올 것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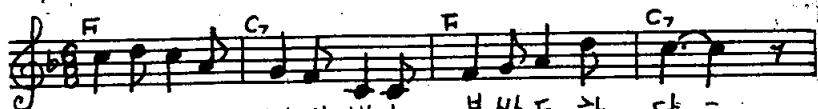
하늘도 너를 거-운 목마른 그대 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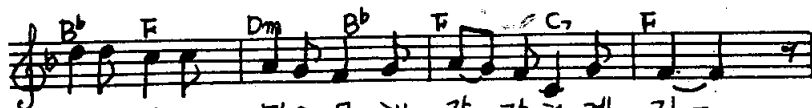
팍팍한 서울길 103 몸팔러간 - 다.

허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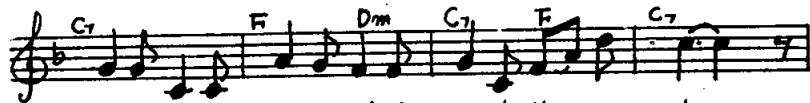
원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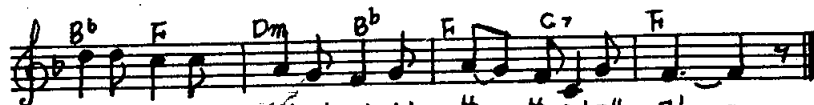
1. 눈 두렁의 허재비는 불쌍도 아 다 -
 2. 눈 두렁의 허재비는 불쌍도 아 다 -
 3. 허재비야 허재비야 무얼 보느냐 -



입은 있고 말은 못 해 갑-갑 하 게 지 -
 뺨뽕 뺨뽕 날새 떼는 다- 날아 가 고 -
 찬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오는 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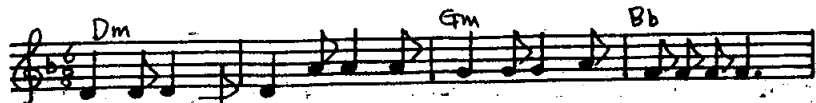
허재비야 허재비야 무얼 보느냐 -
 울멍울멍 더구리도 도망갔느냐 - 데 -
 다떨어진 흰웃입고 추워떨-겠 지 -



일년곡식 산어가니 쓸-쓸 하 게 지 -
 말못하는 허재비만 남-아있구나 -
 허재비야 네신제는 불-쌍하구나 -

허수아비

안혜경 작사·작곡



1. 손톱 발톱 떨어지며 일터내 내 흥나던 것
2. 우리누나 시집갈 때 멍뭍리고 살뜰했던 것
3. 한 톨이라도 더 파 - 서 우리형하고 가야 한다



어 떻새 가 다 따 먹 니 - - 휘여 - 휘여!
 그 만 그 만 다 따 먹 네 - - 휘여 - 휘여!
 이 데 그 만 따 먹 어 라 - - 휘여 - 휘여!



후룩 후룩 참새들은 날 적 마 다 살이찌네
 후룩 후룩 참새들은 날 적 마 다 살이찌네
 후룩 후룩 참새들은 날 적 마 다 살이찌네



있 - 나 마 나 허수아비 - 참새는 내가 쫓 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 - 참새는 내가 쫓 디
 울 러 가 다 허수아비 - 참새는 내가 쫓 디

작업장 I

Em Am C Em C Am7 Dm7 Am7 Em
 어두워지는 작업장 시든 영광등보며 - 지친

C G Bm Am C Am
 몸이나 뉘어 볼까 - 강문 너머로 춤추는 빗줄기 나를

C Am7 Dm7 Am7 Em C D D7 G
 흔들려 오네 - 교향 하늘로 치솟는 머구름 뒷마루

C D7 G Gm7 C D7 G C D7 G
 쫓그린 활미 - 종이 울린다 모진 철야의 종부어라

C D7 G B7 Em Am
 예수의 눈물 - 붉게 물드는 양념의

C Bm7 C Am7 Dm7 Em
 횃감바 터져라 분노의 하늘

흔들리지 않게



1.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물가에
2.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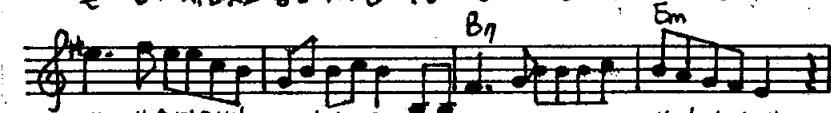


기어질 나무 같 이 흔들리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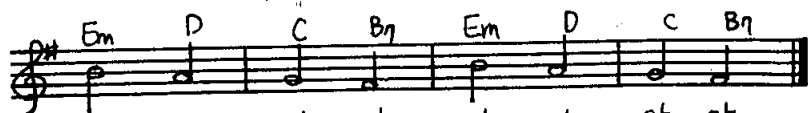
야 근



1. 서방님의 손가락은 여섯개래요 허- 락 걸단기에 뚝뚝잘려서 간-
2. 을 고하고 해- 봐요 소용없나요 막- 노 동 판에라도 나가 봐야요 불-
3. 돈- 벌이 대수라도 좋긴 하지만 무슨 통 써 땅다구로 맨날 철야유수-



개 에 오만원씩 이십만원쯤 술피며 고돌아오니 빈털털이래
 쌍 한 번- 나는 이따하나요 온- 늘 도철야명단 문젯겅지요
 큰 들 하고살어 하느냐면서 힘- 없 이하는말이 제별 삼기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세계 절반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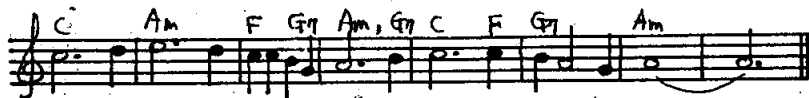
1. 이 지구 상의 절반의 사람 내 이름 바로 그 것 - 거
2. 밤 새워 함께 고통했지만 내 사랑 떠나갔네 - 아
3. 하 많은 사람 오고 있지만 그 대로 지나치네 - 더



다란 창고 가득 찬 곡식 나와는 소용없네 - 초
 침의 밝고 찬란한 햇살 아무런 소용없네 - 너
 많은 재물 모으는 일이 저들의 관심일 뿐 - 땅



주려 무는 아이 위하여 먹을 것 훔아 해를 썼지만 아
 무도 스런 아픔 인하여 내 눈엔 눈물마저 알았네 그
 신을 원망하진 않아 그 러나 외면하진 말아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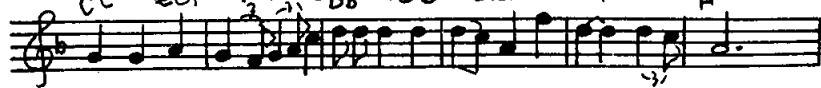


무도 나를 돌아안보네 이 세계 절반은 나 -
 누가 나의 아픔 알리랴 이 세계 절반은 나 -
 여기 당신 곁에 있어요 이 세계 절반은 나 -

소금땀 흘리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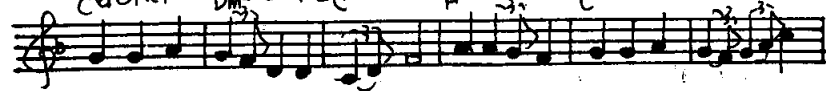
1. 갈-뜻에 벗대-면 졸음이 올-까봐 온-몸-흔들-며
2. 한-밤에 커진-불 열십도 열십이지 두-방에 뜯는-은
3. 한-살이 지나-면 Bb 네문님 떠나가고 두-살이 F 지나-면



밤 바람 씩-는-데 오늘 하루를-린 땅 설만 한-가
 힘 에도 겨-움-지 소울 소울 시-냇물 시원한-가
 고 문님 떠나가-고 세-살이 네-살이 다 지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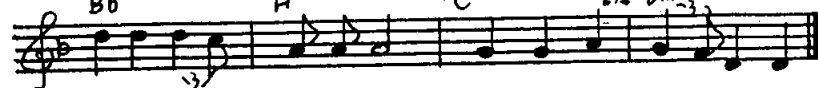
근심-- 들이쉬고 두팔로 지켜주고 흘-리 땀 흘-리
 내일도- 흘-릴 땅 무슨땀 흘리흘리
 남아서- Dm을 사랑 C 소금땀 F 흘리흘리 C



소금땀 흘리흘리 행-여 죽어-도 행어나 살-아-도 F



흘리. 소-금땀 흘리 흘-리 Bb F C Dm



행어-- 살아도 행어나 죽-어도

천 리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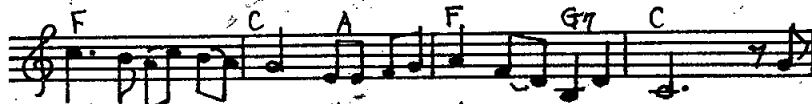
1. 동산 에 아침-햇-살 구름-떨고 솟아-와
 2. 나뭇 앞 이 스-쳐가네 물-방울 이 날으-네
 3. 솔아 지는 불-꽃-살 물-아침 이 흙-먼-지
 4. 땀구름 이 물-려온다 빗-방울 도 떨어-진 다



새하얀 점서 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밤-아
 발목에 엉킨 철-덩쿨 우리 갈 길 막아-도 노루-불
 이마에 맺힌 땀-방울 눈-빛을 눈-에 뜨려-도 우-물
 등 뒤로 흘러 내린 물이 속옷 까 지 적셔-도 소-나



래는 구-름바다 천-길 을 빠른-나 산
 사슴 뛰-어가네 머리 위엔 종달-내 들
 가 새-새-새 시-뭉치 동-이 이고 오-네
 기 들 파-하-라 천-둥 들 무서우-랴 환-경



아 래마-을들 아-밤-새-갈-들-잠-느-나
 저 편-노-두렁엔 아-가-염-소가-노-다
 나 비-나-르-고-아-이-들은-출-랑-거-런-다
 재-이-강-아-지-는-이-리-저-리-땀-어-다-난-다

4. 가

C F D D7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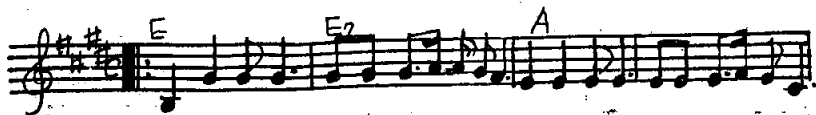
자 전리 길* 굶이 굶이쳐가- 자

Dm G7 Em Am F G7 C

흙 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 다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취음이 쌓-이는 소리
오락장의 걸-러-그 소리 아이틀이 물려드는 소리



내마음 무거워지는 소리 - -
이제는 눈알만 도는 소리 - -



사람들이 날아가는 소리 아버-지가 돈-버는 소리
라디오의 유행가소리 텐레-비현 뱅뱅 도는 소리



내마음 안타-까운 소리 - -
하루하루 지나-가는 소리 - -



변함없 이 들 리 는 소 리



이제는 다 가 버 린 소 리



대석당의 돌개는소리 공-사당의 불-도저소리
빌딩가의 타이프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소리



무언가 무너지는소리 - -
모두가 바쁜고-소리 - -



대포탑의 슬판부딪는소리 추한 나랑 텃가락소리
새마을로 날아가는소리 자가용차 크락쎌 소리



아쉬웁밤 깊어만 가는소리 - -
깜짝깜짝 놀라게하는소리 - -



들리던 소리도 들리지않네



그어디서 울리고있을가 -

땅의 사람들

C Am Em D7 G

어둠 속에 빛나 는 수- 많은 별 처- 량 억눌
 월빛 고춧주린 채 버- 량- 받아- 도 우리

C Am F Dm G C C7

리고 밟혀 도 흔- 들- 리지 말 자 오늘
 들가 숨속 에 뜨- 거- 운 피 념 처 온몸

F C D G

밤이길 다 해 도 끝내 싸워이길때까 지 땅을
 으로지켜 - 서 여기 내땅만들때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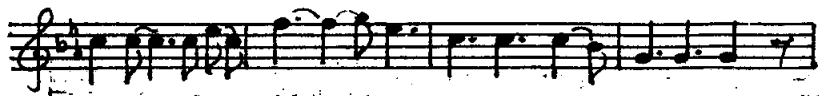
C E F Dm7 G C

덜고서야 한다 땅- 의 사람 들





객지 - 에 나 와 하세월도 길어 - -



몸은 - 병 - 들 - 고 갈갈 - 이 - 떡졌네



고향 - 집사립문 - 늙은 - 오 - 매 - 이테 - 내



가 - 도 - 받아 즐랑가 - 즐랑가

솟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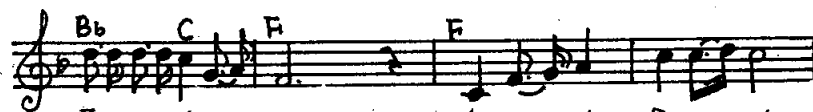
1. 솟아-라 산맥도 툼위로 높이솟아-라
2. 말하-라 두눈이가리우고 귀마테 막혀버려도
3. 울려-라 운동의새깃발을 높이올려-라



하얀애기달도 붉은 혼룡불도 하늘높이솟아-라
 혀는달리워서 입으로 말뭉해도 몸뚱이로말하-라
 뛰는가슴으로 피끓는가슴으로 하늘높이올려-라



배추포기춤추며 노래불러라 바람따라건새벽이 뚜벅뚜벅걸어서
 이땅에서들리는 민중의소리 바람따라자유가 뚜벅뚜벅걸어서
 이땅에서들리는 민중의소리 바람따라해방이-뚜벅뚜벅걸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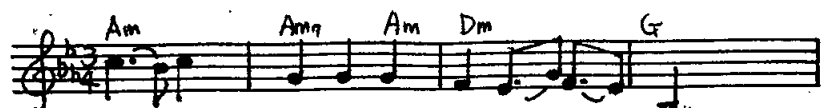
들어오는날까-지 솟아-라 솟아-라
 말하-라 말하-라
 울려-라 울려-라



하늘높이 솟 아 -	라
몸뚱이로 말 하 -	라
하늘높이 온 려 -	라



누 두 꽃



1. 빈 - 손 가 득 히 움 께 - - - 된
 2. 끝 없 이 혀 는 - 달 리 어 온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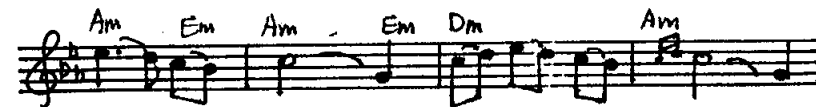
행 - 날 에 - 날 아 -
 큰 - 은 벽 - 각 에 -



벽 - 에 - 도 쇠 강 - 살 에 도
 마 - 지 - 막 풍 곡 - 으 로 날 아



노 을 로 불 게 - 살 - 아
 라 - 네 불 라 - -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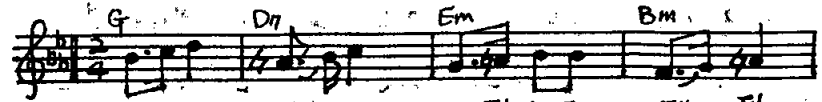


라 - - - 네 - 불 - - - 라 - 네 -
 누 - 두 - 꽃 이 라 - - - - 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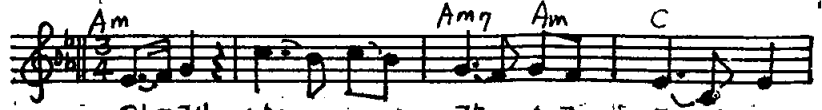
1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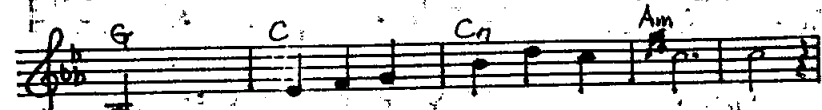
깊은 밤 - 밖 - 속 - 의 - 깊은 - 고 - 표 - 은 -
 별 - 푸른 - 시 - 가 - 문 - 아 - 래 - 모 - 베 - 어



안 - 피 - 에 - 살 - 아 - 모 - 질 - 수 - 록 - 매 - 필
 한 - 발 - 아 - 래 - 한 - 발 - 이 - 어 - 그 - 슬 - 러 - 라 - 하 - 늘 -



아 - 래 - 날 - 이 - 는 - 갈 - 수 - 록 - 뭉 - 찰
 운 - 세 - 상 - 을 - 번 - 들 - 이 - 는 - 총 - 검 - 아 -



강 - 려 - 거 - 역 - 의 - 불 - 동 - 다 - 에 -
 래 - 비 - 웃 - 음 - 아 -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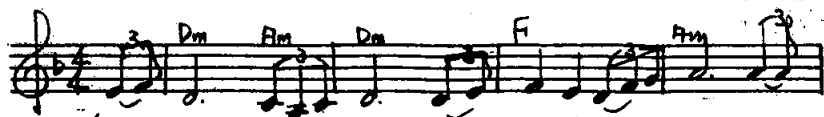


핏 - 발 - 로 - 살 - 아 - 열 - 심 - 소 - 리 - 사 - 라 - 져
 나 - 희 - 나 - 를 - 육 - 시 - 토 -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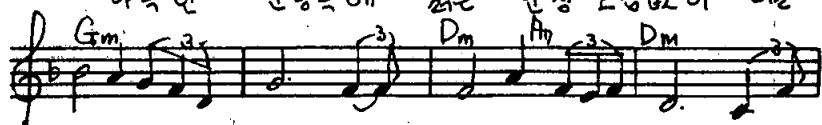


비 - 린 - 밤 - 음 - 끝 - 없 - 고
 끝 - 끝 - 내 - 살 - 아

아 다 다



1.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불에 스칠때 검은
2. 야속한 운명속에 많은 순정 보람없이 비둘



머 리 은 비녀 에 다롱 치 바 어 여 배 라 꽃 가
개 의 깨 어 진 잠 풀 앞 따 다 입 에 물 고 보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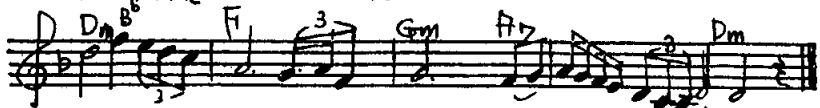
바 - 에 이 소 짓 는 말 못 하 는 아 다 다 여 차 라
자 - 리 꽃 겨 나 는 말 못 하 는 아 다 다 여 선 념



리 - 모 를 것 을 - 잠 은 날 의 그 리 념 뿐 가 승
고 - 바 다 건 너 - 행 복 찾 아 어 디 간 나 말 하



에 못박고 서 떠나 버린 함그리 뒤 별
 라 방앗물 걸 보았느냐 갈매기 때가



아래물머새는 검은눈의 아--다-다-여
 는 곳 어디에도 대답없는 아--다-다-여





3부



학 살

학살의 원흉이 지금
목좌에 앉아 있다
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난 시민들은 지금
죽어 갇히미로 쌓여 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
학살의 조종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당신은 몰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나도 걱정 지킨다는 군인들이 지금
학살의 거리를 누비면서
어깨춤을 하고 있다
목좌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들은 지금
주택가를 난입하여
학살의 흔적을 지우기에 광분하고 있다
목좌의 결석을 위해
당신은 몰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당신은 몰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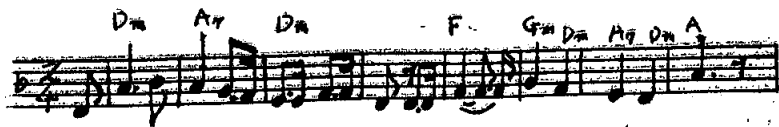
보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물은 머리카락을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의 눈동자를

장군들 제국의 앞잡이들
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집행인들
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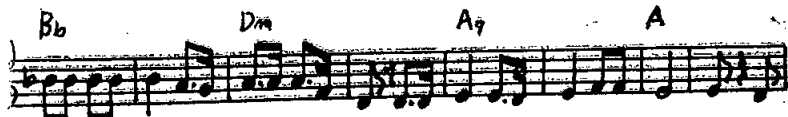
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
빛줄이 되어 너희의 목을 감을 것이며
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 그 하나하나
총알이 되고 탄환이 튀어나와
언젠가 어느 날엔가는
너희들의 성장에 닿을 것이다

언젠가 어느 날엔가는
너희들의 성장에 닿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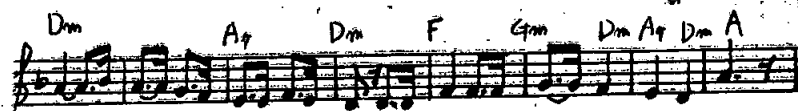
동학농민가



1. 붉은노을잔을여-퍼-저편박의-설음 이받쳐
2. 검은강물햇살에-담-겨역놀림-의설음 이받쳐
3. 한울토을고-평토을엿다가렘주구의설음 이받쳐



보국안민기치가 높이솟았다 한-울-북 울리-며- 흙
 혁명혁애기치가 높이솟았다 개-변-고 울리-며- 주
 제국주민기치가 높이솟았다 영주소리드 높이-며- 조



달-은 활-뚝엔 불거렘핏 줄 향로 별판에 모-여 선그 날
 린-배를-움켜잡-고- 서 축랑들-고 알-어 선그 날
 큰피죽한나발을고을엿다 갈가마귀떼 울부짖던그 날



유도별도 누천년에 운이 다했다 농민들의 흐느낌이다 저
 태평-곡려양가를 불-것이 다 농민들의 아우성이다
 춘삼-월화서털을 불-것이 다 농민들의 불망기이다



흰반위에 대나무 숲을이루고 봉황대엔 달이비추다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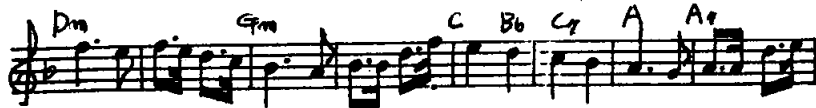
은해가 비로소 빛을 내던 날 향로련의 햇빛이란다 하



늘아래 들판에 난 위에 가슴마다라는분노는 무엇이었나 갑



오년의 햇발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 피다-야야야야



야야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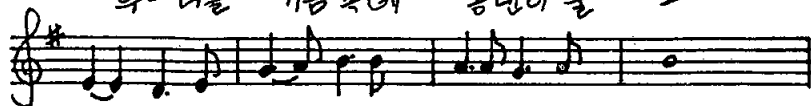


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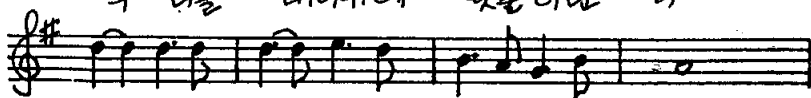
호남 농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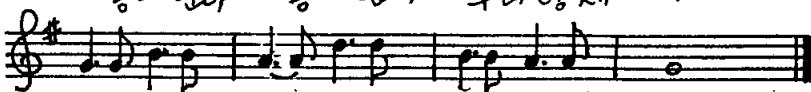
1. 녹두장군 말타린 턴 호남벌에 서
 2. 눈보라도 레-치고 쇠사슬 끊 고
 3. 우-러들 가슴 속에 농민이 울 고



항-토갈 달-리며 우리 자 갓 다
 오-누라 달-리던 우리 형제 들
 우-러들 머리위에 햇불 이라 다



노-령의 험한 난대 정기 밝아 서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를 안 고
 농-민아 농-민아 우리 형제 여



바위 같이 곧-세게 힘을 길렀 다
 열사안고 춤-추며 노래무르 자
 죽량들고 일어서자 정의 물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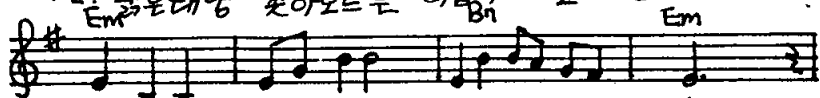
농민가



1.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 깨 - 어

2.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내 - 영 - 사

(1.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 깨 - 어) * 노동현장
 2.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아침의 - 오 - 락 개사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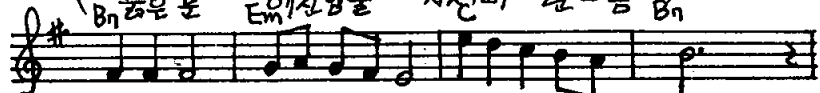


배달의 농사 형제 울부짖 - 던 - 날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 - 달이 여

(미성애 머리보고 꾸벅이 던 - 밤)

B7 Em B7
 흥운 눈 희진 앞술 지천버 - 린 - 음 B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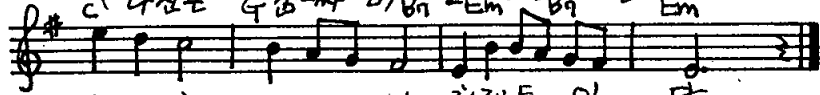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 서

찬란한 승 - 리 - 의 2살이 오 - 걸

(손가락 다 - 치며 청야하면 - 서)

c 다친손 구 - 씌 - 며 B7 Em B7 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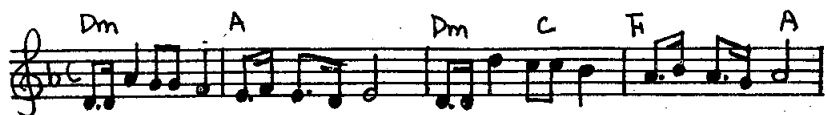
길리를 외치 - 는 형제들 - 있 - 다

준추며 싸우 - 는 형제 2 - 랍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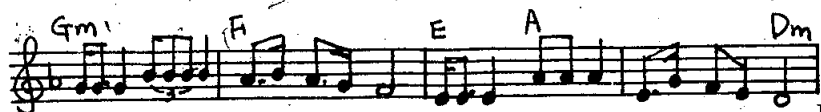
(아침이 오기 - 를 기다린 - 단 - 다)

이름이 실컷 - 음 어디에 - 이 -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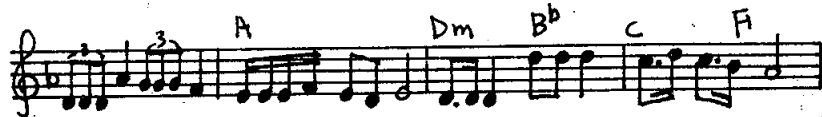
새 등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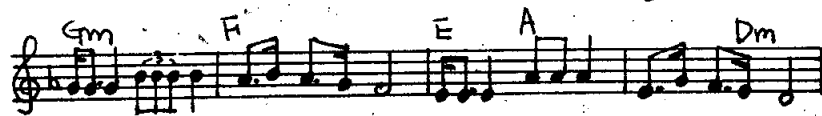
익히게 권은 팔 접은 소매로 쓸우는 바지땀 흠뻑 흘리며



아직도 넓기만한 거진 향토에 바래고 기리는 바람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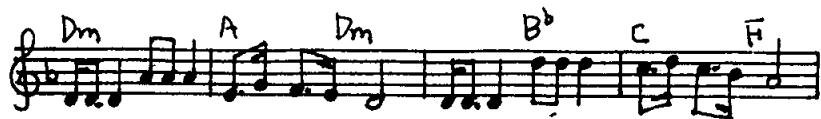
살나뭇도 알고있는 순기로운 대라는 장한숨 못자고 순기물이며



아직도 넓기만한 거진 향토에 바래고 기리는 바람 많았다



어느 땅 위에도 하늘은 있고 어느 하늘 밑에도 바람은 맞듯이



누런땅 그속에 쏘는 마늘과 파란순 그속에 쏘는 타령은



내 밭은 헛밭은 다르다지만 끝내는 한강에 허사가되리.



에루아 에루일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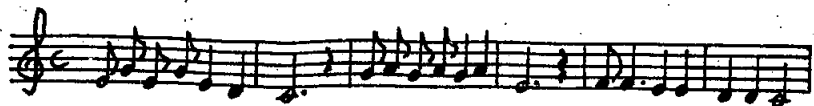
앞에서 끌어주고 에루아 에루일싸 뒤에서 밀어주고 에루아 에루일싸



우리 모두 힘잡고 에루아 에루일싸 이어등을 뽐내보세 에루아 에루일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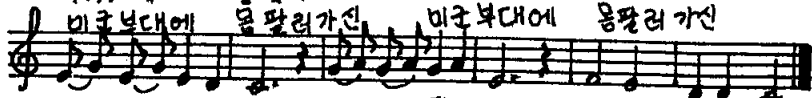
점아 점아 콩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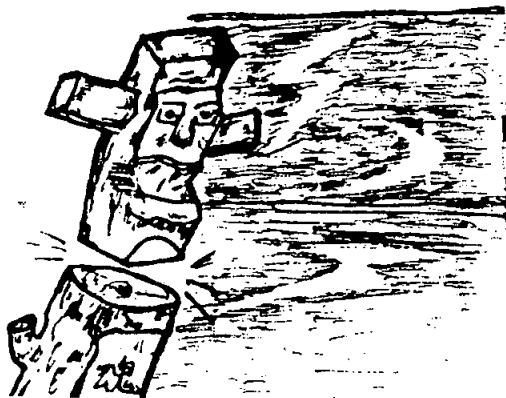
점아점아콩점 아 술사줄게나온 나 술사줄게 나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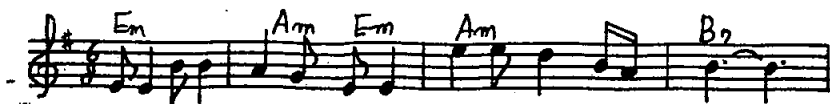
갑오전쟁 때	칼맞아가신	갑오전쟁 때	칼맞아가신
3.1운동 때	총맞아가신	3.1운동 때	총맞아가신
6.25 때 -	총맞아가신	6.25 때 -	총맞아가신
4.19 때 -	총맞아가신	4.19 때 -	총맞아가신
미국부대에	몸팔려가신	미국부대에	몸팔려가신



우리 할배	야	우-리	할배야	음 음	나온다
우-리 할배	야	우-리	할배야		
우-리 아배	야	우-리	아배야		
우-리 선배	야	우-리	선배야		
우-리 누이	야	우-리	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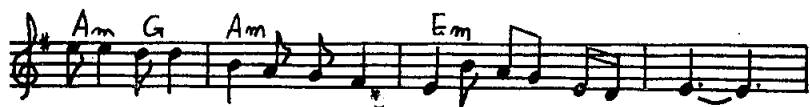


해야 솟아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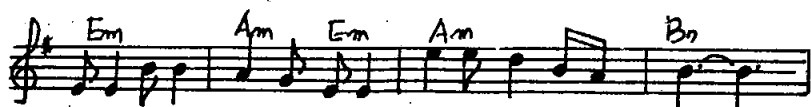
1. 어찌하여 농민 들은 저 곡 가 요 - 요

2. 어찌하여 4.19 는 의 거 이 요 - 요



어찌하여 노동자는 저 임금인 가 - 요

어찌하여 5.16 은 혁명인 - 가 - 요



에야디야 에야디야 서글픈 나 - 라



에야디야 에야디야 해야 솟 - 아 -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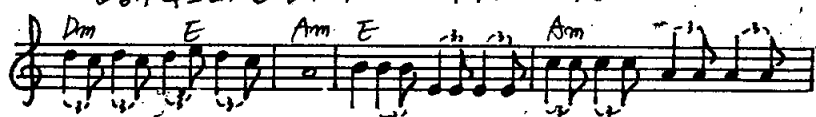
저 놀부 두손에 먹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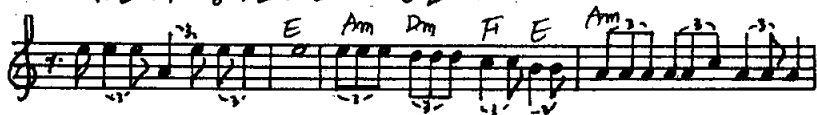
저 놀부 두손에 먹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애비없는 아이들 주막으로 데리며
 저 목사 한손에 성경책 또 한손에 저승를 믿음의 름도 - 는 천국의 맏수라



꽃노래 부르며 물장구치며 - 저 놀부 두손에 먹들고 손뼉에 뒹굴듯이
 찬송가 부르며 놀려주야 - 저 목사 뱃대기 불 - 웃 권위의 마름을 싣고



어저 써구, 침묵의바다 외딴에 말뚝타고 똥싸는놈 거뭇개고
 어저 써구 방석짐으로 기념찰 옆에기고 교회가서 설교하고



애베키로 배자대고 - 꽃노래 부르며 명실명실 저 놀부 두손에 먹들고
 내일이면 말세라네 - 하늘의 영광 명실명실 어저면 땅에는 평화



저 놀부 두손에 먹들고 저 놀부 먹들고 명실명실 다
 땅에는 비고져 평 - 등 예수님 땅지며 흥극하신다

봉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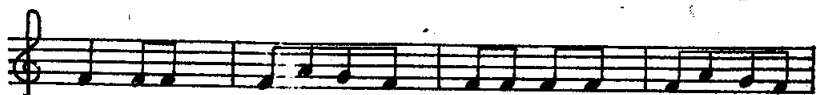
어리쉴 - 저리쉴 - 바지 아래 똥쉴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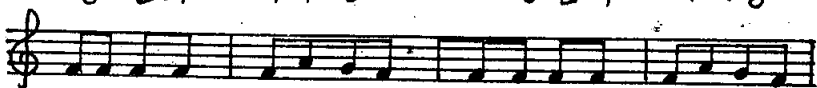
두리두리 강초이라 개 - 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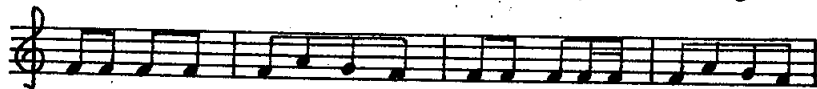
이런 봉 - 저런 봉 - 개미허리 잘룩 봉 -



강 건너 무수봉 - 하왕십리 무학봉 -



남자배우 윤일봉 - 여자배우 도금봉 -



살인강도 고재봉 - 그때 그사람 심수봉 -



두리두리 강초이라 개 - 천 봉



아메리카 방구는 초코렛, 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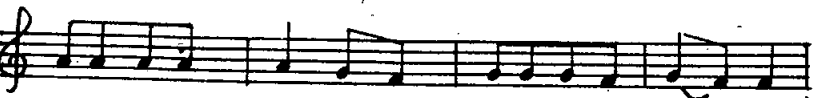
초코렛 방구는 단 - 방 - 구



재팬이즈 방구는 가닥구리 방구



가닥구리 방구는 시금털 털



우리나라 방구는 구호물자 방구



구호물자 방구는 배가고 따



배가고 따 한푼줍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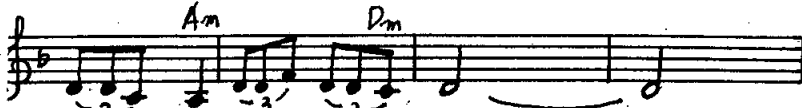
고 아



1. 낮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내죄아 닐 내죄에 없-내
 2. 배고플땐 주먹을 깨물었고 못마를 땐 눈물을 삼-켰



어 - 낙 영따라 떨 어-진 이한목 숨
 다- 의 리로서 맺 어-진 우리사 이



가시밭 길 헤치며 샅-았 다 -
 뭇숨가 지 바치며 샅-았 다 -



III 눈 불 장 - 바 -



아 - 누구의 잘-못 인-가 요



누구의 잘-못 인-가 요

맹인 부부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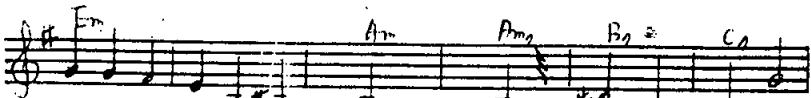
1. 눈 내 려 어 두 워 서 -
 2. 노 래 가 길 이 되 어 -



길 - 을 잃 었 네 - 갈 길 - 은
 앞 - 질 러 가 고 - 들 아 올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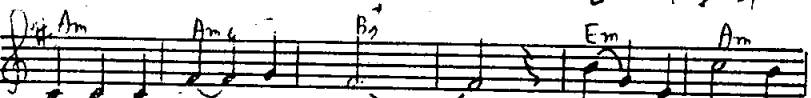
말 - 고 길 을 잃 - 었 네 - 찾
 없 는 길 앞 질 러 - 가 고 - 람



아 오 는 사 랑 없 이 - 노 래 부 르
 박 눈 은 내 리 는 데 - 갈 길 은 먼



니 - 눈 맛 으 며 돌 아 가 는
 데 이 - 버 을 밤 거 리 의



저 - - 사 랑 들 뿐 - 사 - 랑 할 수
 는 사 랑 되 - 었 네 - 아 - 름 다 운

C₆ B₇ E_m A_m F₂[#] B₇

없-는 것 사 랑 하 기 위 하 여
이 세 상 을 건 질 때 - 까 - 지

E_m A_m C₆ B₇ E_m A_m

용-서 받 지 못 할 것 용서 하기
절-망 에 즐 거 움 이 잦 아 올 때

G B₇ E_m A_m B₇ G

위하-여 눈사-람 을 기 다리 며
까-치 무관-심 을 사 랑하 는

A_m G B₇ E_m G

노 래 부 르 네 - 세 상 모-든
노 래 부 르 네 - 눈 사 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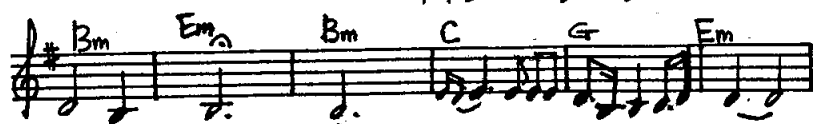
B₇ E_m A_m B₇ E_m

기 다 랑- 의 노 래 부 르 네 -
기 다리- 는 노 래 부 르 며 -

빈 산 ✓



빈 - 산 아무도 더는 오-르-지 않는산
 아무도 더는 잡-지-도 않는산



저 빈 산 해와 바람이 부-딛혀-우는
 저 빈 산 한줄 흙을쥐고 울-부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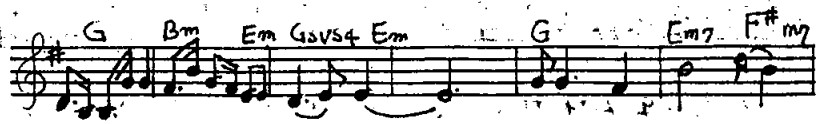
저 외-로운- 벌거 송이산 이-제는 우리가
 -아 고-달픈- 나의 사랑아 지-금으 험담한



죽어-없이 저도 상-여-로도 떠나지
 저-산 에내가 죽을 저-흔속 에 끝없이



못한 아득한산 빈 산 - 내일으 한-그루
 죽어 끝-없이 죽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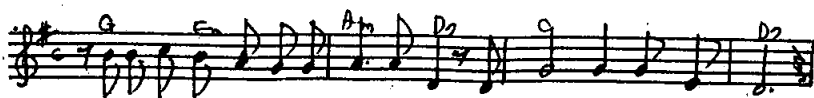
새-푸-른-솔-알-풀-도-물-라-라- 저-산-에-저-번



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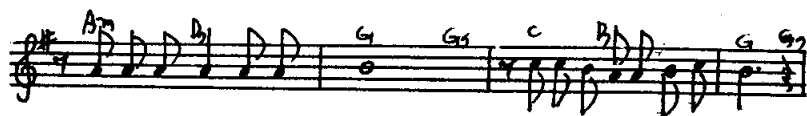
감 박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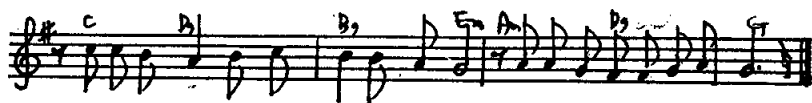
1. 오늘도 시다판에 열드려 감 박 잠자는 데
2. 오늘도 시다판에 열드려 감 박 잠자는 데



고양집뒀 - 산길 들국화 이리도 이뻐 나 -
 내 - 가슴속에서 미성을 타 - 고 있었네 -



잠깨지 말았으면 얼마나 봐야라는 데
 잠깨지 말았으면 이젠도 별수있는데



그러나 연니의 흐름소리 얼마나 봐야라는 데
 그러나 연니의 흐름소리 이젠도 별수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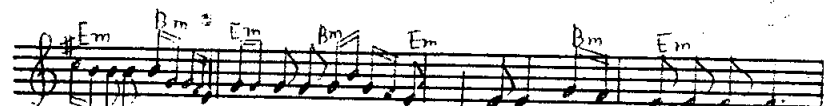
1. 하늘 나는 - 저 새는 저의 날개 것 - 으로는
 2. 가난해서 - 못 배운 설움 만도 뼈아픈데
 3. 작업장에 - 들어 서니 행부 소가 따로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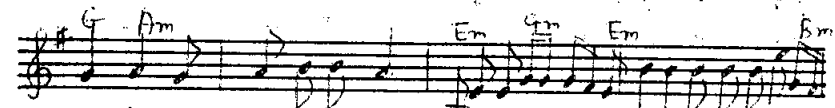
푸른 - 하늘 날으 - 면서 맘껏 자유 - 누리는데
 걸핏 - 하면 교양 - 없다 무식하다 - 쥐어박교
 일하 - 는자 시키 - 는가 너무나도 - 다르구나



기 계에 매어 달린 못난 - 이 내 몸뚱이 는
 부모 남이 나 - 에게 주어선 이름 있건 마 는
 이 세상 모든 것 울 이 내 손이 만 들 건 만



고 - 달픈 몸 것만 되풀이 - 하구나 어 - 리야 - 어 - 리허
 공 - 돌이공 손이 개뼉뚫 - 불려매네
 이 - 세상만 - 들것 이 내일 - 거부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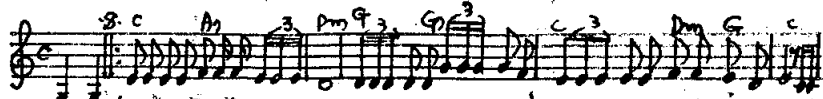


그 누굴 원망하 라 못배워 평만 따는 우리 부모 원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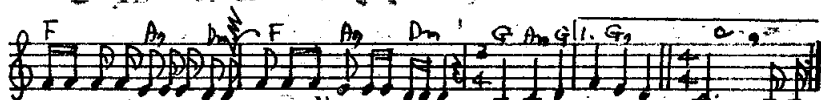


어 - 리야 - 151 어 - 리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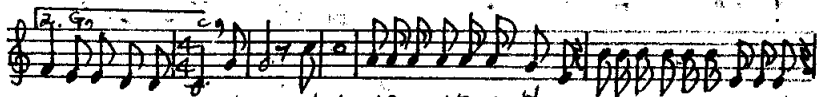
살아온 이야기



내가 어렸을적 엄마가 말했어요 서울에가서 돈벌어라고 시골에 와서 시집가 라고 나는
와서 처음 다녔던 공-장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 한 달 월급은 밤만 오 걸원나는
가서였다 오빠라 싸웠어요 그-런후에 가정학도 가서 오개월 동안 일을 했 었죠 나는



서- 울이 너무나 좋아 공학교 줄-업학교 서 울로 왔답니 다 서울
서- 울이 너무나 싫어 공장이 너무나 무서워 엄마에
공순이란 놀림이 싫어 공장이 너무나 미-워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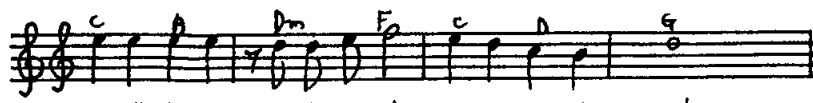
게 돌아 갔어 요 엄마 엄마 서울은 너무나 싫어 공장은 너무나 무서워
안 되겠 다- 고 엄마 엄마 그러나 알겠 어요 우리가 노동자 된-것



다시는 공장에 안갈 거 라 고 - 길에 고 - 어
우리들 모두의 운명 이 라



 떠한 고 난과 시련이 우리 앞세웠을지라도



 큰 선봉기 힘을 모아 싸우러 가자



 약의 무리 몰리치는 노동자가 됩시다



조 음

선뜩날짜가 다가오면
백리길 천리길도 수임없이 몰아치는
강행군이 시작된다
어차피 하지 말라 해도
올라간 방세를 매꾸려면
아파서 말린 깃돈을 때우려면
주 78시간이건, 84시간이건 먹어치워야 한다

전병이 일 못하고 잠 못잔 귀신이 씩씩나
꼬집어도 찢러도 혀를 깨물어도
고된 피로의 바다 졸음의 물결에
꿀까닥 꿀까닥
눈앞에는 프레스의 허연 칼날이 쓰윽쿵 툭탁
미성 때려받는 순정이는
눈감고도 죽죽 누비는 자동기계가 되어
망리될하는 어린 시다
깨어진 손을 감싸 울면서도
눈이 감긴다

작업장 스피커에선
마이클 잭슨의 괴성,
조용필의 흐느낌이 지킴없이 흘러나오고
주임과당이 악을 써대도
졸음은 말도 끝도 없이 후감아들어
차라리 차라리 우린
자동기계가 되었으면,
잠안다는 침승이 퇴기를 유희하며
피흐르는 손가락을 뭍는다

아침에도 대낮에도 밤중에도
단한순간 많은 날이 없이
마리게 미치게 풀려,
꿈결속에 노동하며 아직 성하게
옹게도 붙어 있는 내 두손이 고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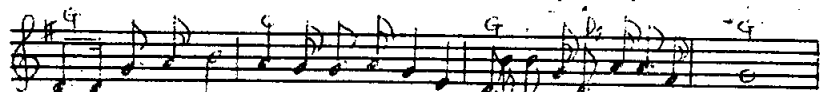
시커먼 무우판자처럼
피로의 풀음에 떨어딘 스물일곱 향초,
그래도 아침이면 코피 쏟으며 일어나
졸음보다 더 졸다란
저엄금의 포승줄에 끌려
햇살도 찬란한 번영의 새 아침을
풀며 풀며
더욱같은 된쟁터
저쪽스러운 기계 앞에
끓어 오른다

1974

우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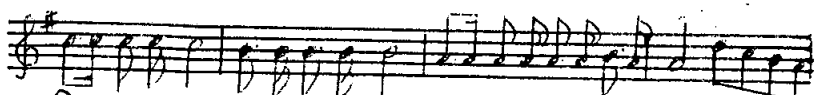
사-장-님 우리 사 장.님 돈 목.심 좀그만세요 네?
 반-장 언니 감 독 아 저 씨 이 제 그 만야 단 치 세 요 네?
 노 조 도 안 돼 단 결 도 안 돼 안 돼 는 게 너 무 많 아 요 네?



사-우 나 에 몽-보 신 에-말-배 진 득 이 같 아 요
 언니 들 처 럼 아 저 씨 들 처 럼 때 가 묻 지 않 았 같 아 -요
 사 람-달 게 날 겠 다 는 데-부 당 해 고 왜 말 인 가 요



우-리 들 은 못 배웠 지 만 할 말-이 많-은 걸 요
 저-임 금 에 장 시 간 노 동 노 동 3. 권 어 디 갔 나 요
 이젠 알 아 요 노 동 자 권 리 사 워 야 만 얻 는 다 는 걸



배 문 말 한 다 고 나 가 시 라 면 아 이 구 그 건 점 말 안 돼 요 (정 말 안 돼)
 졸 음 에-겨 워 불 량 나 오 면 그 게 모 두 내 탓 인 가 요 (말 도 안 돼)
 아-무-리 방-해 해 도 우-리 같 기 막 은 수 없 어 (힘 찬 전 전)



우 리 마 음 천 사 같 지 만- 화 가 나 면 무 섭 다 구 요
 우 리 들 은 일 만 할 줄 아 는 기-계 가 아 니 같 아 요
 민 주 노 동 꽃 피 을 때 까 지 단 결 투 쟁 할-거 예 요

떠다니다



결사도 아난데 뜯구름 - 도 아난데 이 공단저공단을



떠밀려 - 다녔지 1. 여기나 저기나 묵대인 기음방
2. 꼭 마주잡 - 으 이어린 손들을



낯설은 얼굴들의 냉 - 대 몸 - 서리 젖지는
결단코 놓지 않을 거 - 야 이 -젠 떠날수 없



데 - 또 다시 떠나야하 나
어 - 내 발로 내가 섰어 야

시대의 꿈

1. 건 - 공 장 의 밤 은 무
 2. 열 려, 모 - 든 무

시 련 어 개 위-로
 조-음-치-는

피-로-가 한 파-치-럼
 가-위-칠 망 치-럼

불-려 온 다
 다-잡-질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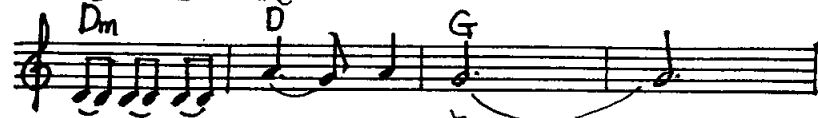
드르드르-드 미-싱-을-라-고
 아-작-은-시-다 미-싱-을-라-고

꿈-절-같-은-미-싱-을-라-고
 장-군-같-이-미-싱-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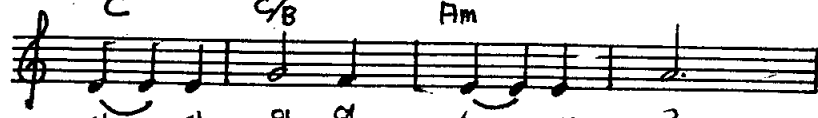
C C/B Am
 Dm C Am G
 C G C
 Am Em Am
 F Dm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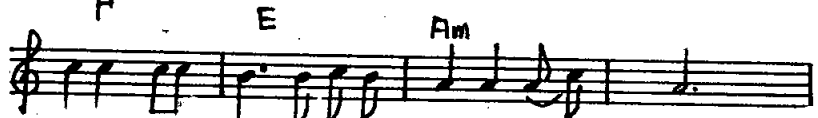
두 알 - 의 타이 밍 으 - 도
갈 라진 세살 하 나 - -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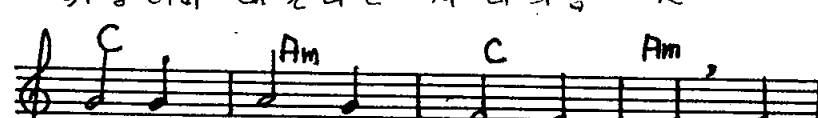
첫 - 야 - 를 버 - 리 는
연결하고 싶은 시 다 의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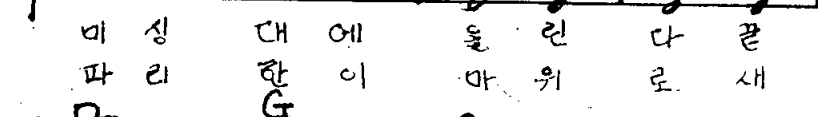
시 - 다 의 연 손 - 으 로
찬 바 람 부 는 흥 단 거 리



장이 빛 - 었 된 흥을 삭 듯 찾 - 라
휘청 이며 내 달 리 는 시 다 의 몸 쫓



미 싱 대 에 울 린 다 끝
파 리 한 이 마 위 로 새



도 없 어 울 린 다
별 별 별 난 다 -



도 없 어 울 린 다
별 별 별 난 다 -

시대의 꿈

긴 공장의 밤
시린 어깨 위로
피로가 한파처럼 물려온다

드르록 드르록
미성을 타고, 꿈결같은 미성을 타고
두약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리는
시대의 연 손으로
장미빛 꿈을 달라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삭둑 달라
피 흐르는 가족분을 미성대에 올린다
끝도 없이 올린다

아직은 시대
미성대에 오르고 날다
미성을 타고
당근처럼 당당한 열기로 미성을 타고
연·뭉툰아리 감싸 줄
따스한 옷을 만들고 날다
짜꺼딘 날림을 길고 날다

떨려오는 온몸을 소름리며
가위질 망치질로 다짐질하는
아직은 시대,
미성을 타고 미성을 타고
갈라진 세상 모으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날은
시대의 꿈으로
한바람 치는 공간거리를
허형이며 내달리는
인호한 시대의 물뚝
파리한 이마 위로
내벽별 빛나다

어머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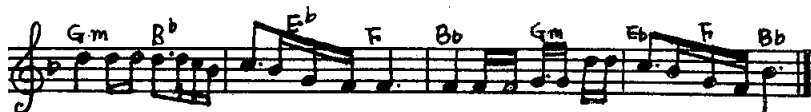
1. 아들이 내가 너만했 을 땐 비누 공장의 여공이 - 었다
2. 우리네 원료로 만든 물건의 우리 손으로 - 만든 물 - 건이
3. 우리는 모든것을 빼앗겼단다. 나 중에 가진 것이 없으니 - 가
4. 건너마을 구우회 막내아 - 들 나와 혼인해서 함께살 - 자던
5. 어느날 순사가 공장에 와서 친구 들을 모두다 끌고 갔단다
6. 우리는 해방됐다 자유 얻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오지 않 - 았다



- 우리는 열심히 일 을 해 - 서 일보만 좋은 일 시켜줬단다
 우리 것이 아니라 바다건 - 너 짐작자 일보 눈 것이었 단다
 마지막 하나 남은 뭇뚱아 - 리 그것마저 빼앗겼다 빼앗겼단다
 그 종각은 죽어서 돌아오 - 고 울 으며는 끌려가서 소식도 없다
 돈 많이 벌 거라며 끌고 가서는 전쟁 터의 군대창고 만들었 단다.
 아버지는 오빠를 기다리다가 그이들해 닷뼉으로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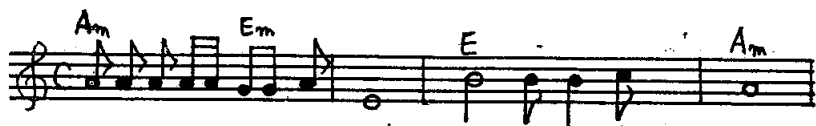


7. 아들이네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남의 짐작 받지 않는 나라만 -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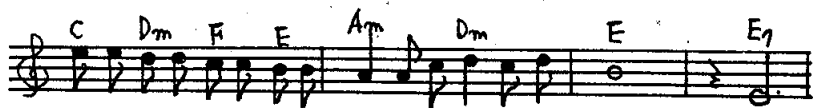


- 배고파 우는 사람 없게 하여라 주위에 떠는 사람 없게 하여라

노동의 새벽



1. 전쟁같은 밤 일 을 마 치 - 고 난
2. 설은 세 그릇 짬밥 으로 기름 두성이체력전 을



새벽 스린 가슴위로 찬소주를 붓는 다 아
 전력다해바둥치는 전쟁같은 노동 일 아



이러다간 오래뫼가 지 이러다 간 끝내뫼가 지
 오래가도 어쩔수없 지 끝내뫼가도 어쩔수없



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때 깨뜨려쑈 구



철 거친 땀방울 피눈물속



에 서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 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



을위 해 새벽스린 가슴으로 찬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해방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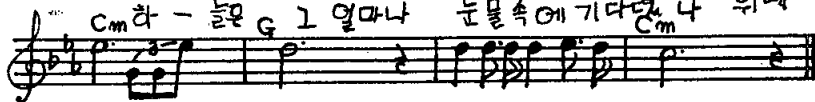
1. 강-제와 감시속에 우울하고 고통에찬
2. 짓누르는 억압-의 사-슬을 끊으려다
3. 수천년의 고통에찬 어-둠을 불사르고



죽-음의 고통같은 노동 에서 해방되어
 쓰러져간 동지-의 거룩 한뜻 죽지않았다
 새역사의 지평-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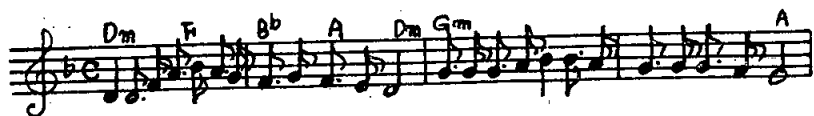


자유를 얻고 기쁨에찬 빛나는 노동쟁 취 동지
 탄-압을 물리치고 굴레를 깨어버려 동지
 하-얀 그 얼마나 눈물속에 기다렸나 위해



여 두려움없 다 역사는 우리의 것
 여 전진이 다 노동자의 깃발날리 때
 한 노동자 의 승리의 그 날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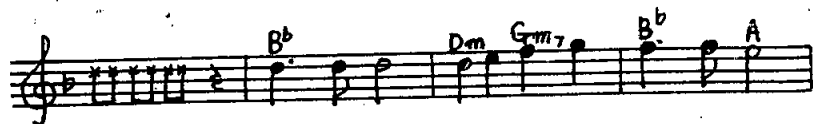
노동 해방가 Ⅱ



1. 북중의 침묵에서 깨어 일어나 삶은 제제검필을 깨 - 부수고
2. 기만과 폭력으로 빼앗긴 권리 쟁취하지 못하면 그누가주랴



근센 몽기 힘찬전진 사선을 넘 어
피명으로 열-룩진 끝없는 투쟁



가자 (3번) 일 천만 노동자여 이 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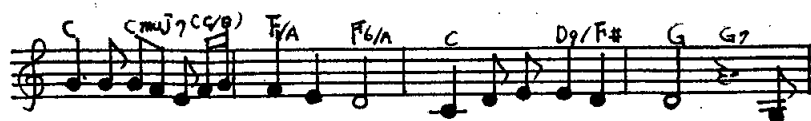


민주의 햇불들고 온몸으로 외치나니 노동 해방이여

그 날이 오면



한 밤의 꿈 - 은 - 아 니 리 오 랜 고 롱 다 한 후 에 내



형 제 빛 - 나 는 - 두 눈 에 뜨 거 운 눈 물 들 한



줄 기 강 - 물 로 흘 - 러 고 뒤 따 랑 을 함 께 흘 러 드



넓 은 평 - 화 의 - 바 다 에 정 의 - 물 결 넘 - 치 는 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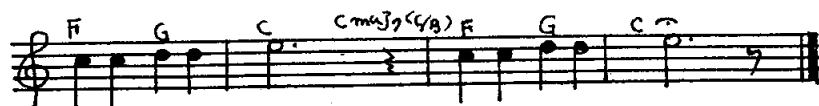
그 날 이 오 면 그 날 이 오 면 내



형제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 도 아-



피맺힌 그-기-다림도 헛된꿈이-아니었으리



그날이오 면 그날이오 면



Biot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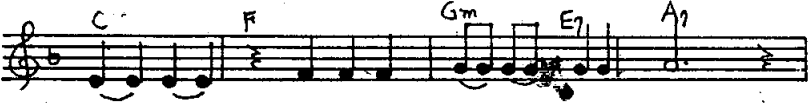
민 주



1. 너는 햇살 햇살 이었 다
 2. 너는 불꽃 불꽃 이었 다
 3. 너는 바람 바람 이었 다
 4. 너는 바람 불꽃 이었 다



바람은 일고 달 뜨고 답답해도
 갈수록 어두운 제일이
 거센 폭풍 바람 이었 다
 우리를 어둠 속에 빛 던지고



네가 있는 곳 단란하게 빛나 고
 스러지는 별 길에 새 별 부르 고
 폭풍 바람 라인에는 아우성 이었 다
 스러져 가는 별 길에 새 별 부르 는



네가 가는 길에 환하게 빛났 다
 언덕 위에 온고 있을 별이 필렸 다
 아우성 속에 해살 별이 있었 다
 불꽃이다 바람이다 아우성이 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 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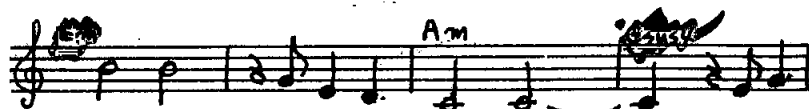
이땅의 피음음인 다 -



부등권 두-팔에 솟아-나 는



하얀웃 의 핏줄기 있 다 해뜨



는 - 동양에 서 - - 해지



는 - 서해까지 - - 퍼지

Em
 유 - 남도에 서 - 광활

F G
 하 - 만주벌판 - 우리

C Am
 어찌 가난하리 오 - 우리

Dm G
 어찌 족쳐하리 오 - 다시

C Am
 서늘 저-툰판에 서 - 땀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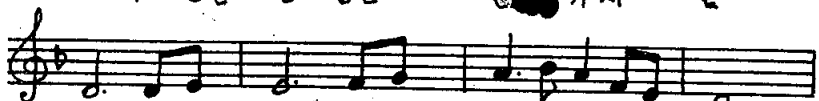
Dm C
 쥘 또 겨울이 어

민주 너를 부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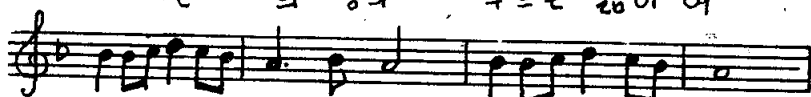
1. 이 드넓은 세상 에 태어 나

2. 이 들판 은 험난 한 가시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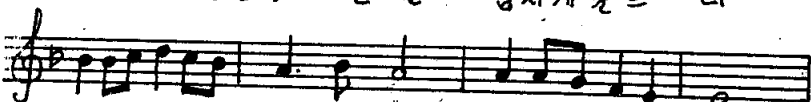
한 많은 역 사를 살다간 사람 들

깨 끄한 희 망의 푸르른 삶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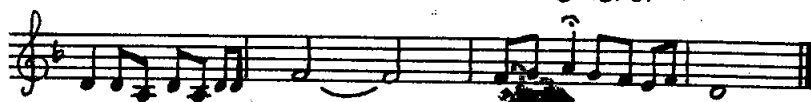
죽음의능선 - 저 몇 리 꽃보다기쁘 - 게

전사의 남김없는 길 을 힘차게 걸으 - 리



혁명 - 과 해방의 길 을 끝없이 걸었 네

가신 - 님 하얀 호 으 로 어 둠을 밝히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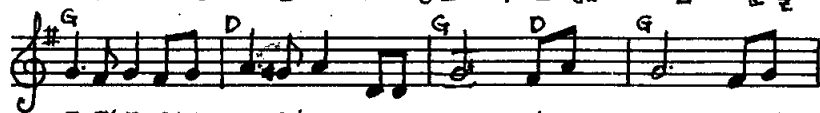
그 길을 우리따르 여 - 민주아너를 부르 마

그 길을 내가앞서 여 - 민주아너를 부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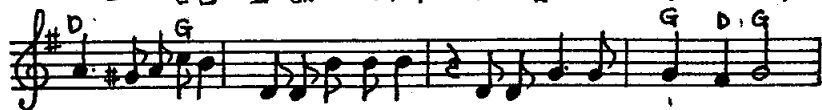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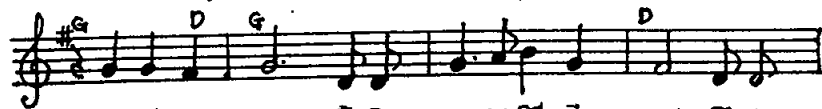
꽃도 없고 이름도 없고 종소리도 없 - 고 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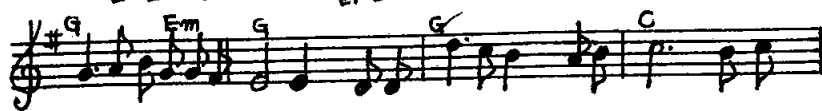
도 없고 한숨도 없고 사나이답 - 게 너의



옛 - 동지들 너의 친절이 나를 흠에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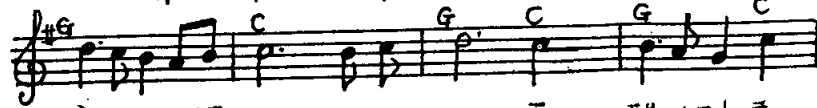
순난자여 흠은 너의 영구 대광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오직 하나의 기도는 동지



여복수 - 다복수 너를 위 해 오직



하나의 기도는 동지여 투쟁이다 투



쟁너를 위 해

꽃상여 타고



꽃상여 타고 그대 탈-가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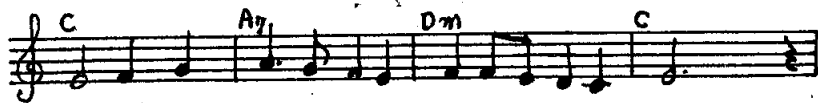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꿈만 꾸다가는 그 대



이 여-름 불타는 벚나무숲 사이로



그-대 탈가라 꽃상여-타 고



가슴에 뜬 칼로 슬픔을 다려 고

F G C Am C Dm F7 E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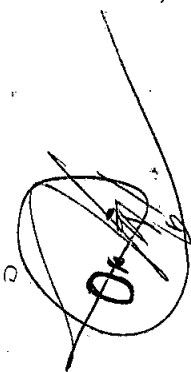
어이 어이 큰 눈 물을 땅에 뿌리 고

Am E7 F E7 Am

1 - 대 탈 가 라 꽃 낭 여 - 라 고

Am E7 F E7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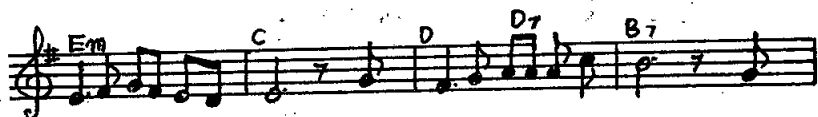
1 - 대 탈 가 라 꽃 낭 여 - 라 고



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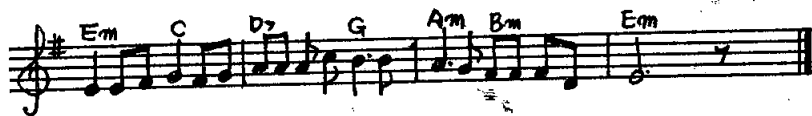
1. 가 라저하-늘-로 내 다시 날아가리 니 세
 2. 날 아이땅-위-로 내 접린 날개 펴고 서 세



삼따가운 햇-살 롤 쓰고 슬피 울던 내 가
 울 무거운 산-천 또 다시 푸드이는 새 날



라 가 거-라 이 구석진 곳 석은 땅 위로 바
 아 가 거-라 이 서러운 곳 뒤로 하고서 힘



람 부는 강이나 곤한 날개로 내 다시 날아가리라
 찬 날개 짓으로 펼쳐진 하늘 내 다시 날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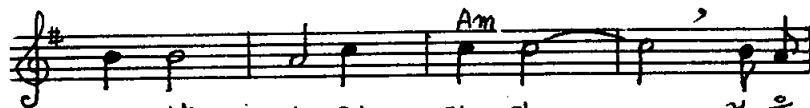
진달래



1. 눈이 - 부 시 네 저 기 -
 2. 그 령 듯 너 희 는 지 고 -



난 만 히 옛 등 바 다 -
 목 재 령 남 온 목 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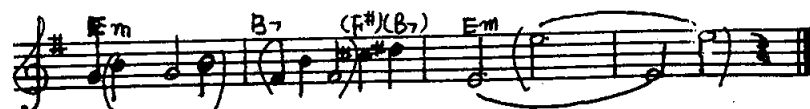
그 보 쓰 러 저 간 - 끊 음
 목 송 - 가 송 위 엔 - 하늘



같 은 꽃 사 래 가 -
 이 무 거 - 운 데 -



냈 혀 던 한 이 터 지 도 - 여 울
 연 령 히 꿈 도 설 위 라 - 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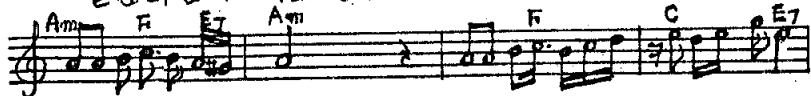


여 울 불 잊 네 -
 도 는 이 산 182 하 -

타는 신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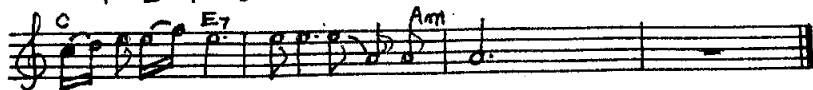


1. 잘란다전아 너는불가운데눕고 너를태운 불길로 전달래편다
2. 잘란다전아 너는검은재로 낮아 너를물모가슴에 한줄기햇살이
3. 잘란다전아 너는어둠속에외살아 너를물은이산하 라오르던 불날에



죽어서 살아있 - 는
 잊었던 낮이되 - 어
 죽어도 죽지않 - 는

불라는 산천으로 풀가슴으로
 부르던 이름되어 하늘이 되어
 뜨거운 바람결에 붉은피리쳐



사-랑으-르 합성으-로-





어두운시대.
죽어간 친구들

→ 4월 16일
1970년 당시
평화시당재단사.
근로기준법준수하라.
'노동자들을 학살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고문에 죽어간 친구 박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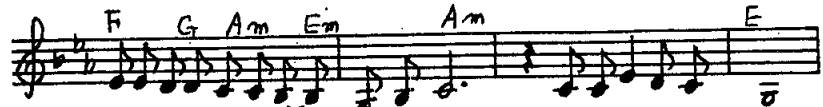


국부독대 삼인취루탄에
죽어간 친구.
이 한 열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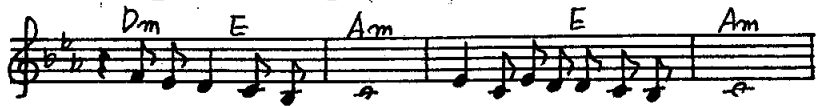
어두운 죽음의시 내 내 친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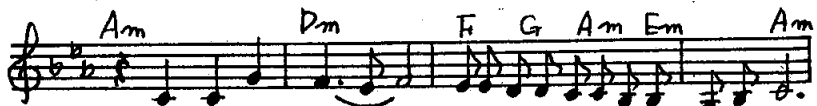
깊은눈물붉은피 흘리며 역사가부른다



겉고험한길을 부소리울리며



사라져간 -- 다 친구는 멀리갔어도



없다해도 -- 고요동자변빛속에 빛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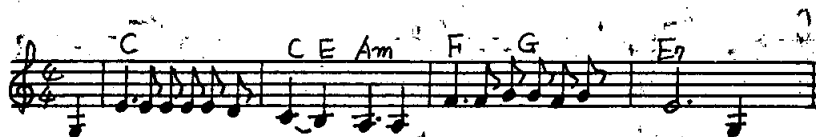


내맘속에영혼으로 살아살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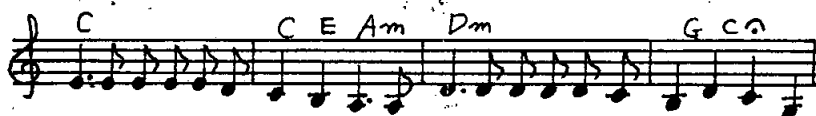


이어돌을 -- 살르리 살르 리
이장벽을 -- 부수리 부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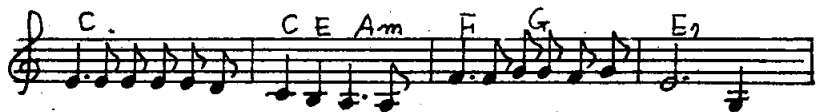
친구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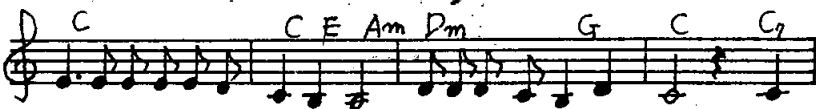
세 상이 다 변한 다 해 - 도 내 가 먼 저 변 한 다 해 도 너



만 은 조 연 할 줄 앓 았 다 너 옛 시 세 상 사 는 나 그 비 족



족 이 불 비 내 리 노 날 에 우 리 를 물 어 달 라 고 그



렇게 두 손 모아 빛 았 다 하늘 나 라 내 님 께 세

이제 떠나 버리나 의지나 가련다

C G Dm Am E C

계는 풍야 풍야리 못 으며 살아 가야 지 나

C E Am G F G E E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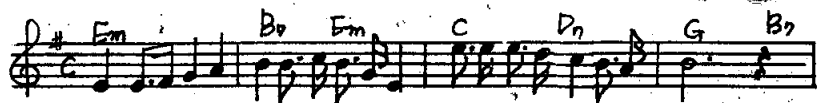
이제 떠나 버리나 의지나 가련다

G Dm Am E C F

이제 떠나 버리나 의지나 가련다

E E₇ Dm Am E C F

선봉에서



1. 선-봉에서 내친-구-어 너의 찬손 내 가슴 에

2. 석은-나무 가지-위-에 불-은꽃을 피어오르고



끓-일듯 끓이지 않-는 너 와 나

광-막한 저들-판-에 오곡이 풍성한데



우리 지금 헤어져-오 새벽에 다시 만나리



바람-부는 저들-판-에 햇불-당기-자

씨를 -뿌리-자

별이여 해방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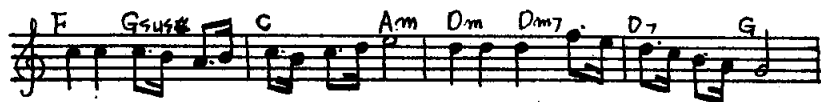
그-날은 모-리-라 · 자유-의 냇으로살아
 그-날은 모-리-라 해방으로 물결종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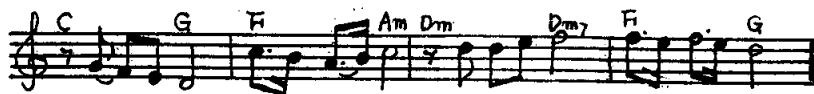
별이-여 고이가소서 그대뒤를 따르리니 함께하리니
 별이-여 고이가소서 투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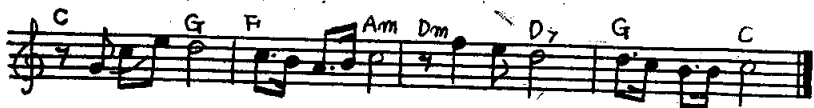
그대라는 불길로 그대노여움으로.



반역의어두움 뒤-잡-어 새날새 날을 여-는구나



그-날은 모-리-라 가자이레 생명을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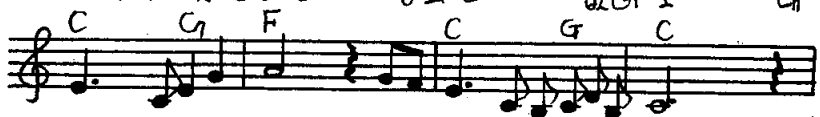


별-이여 새날이온다 별이여 해방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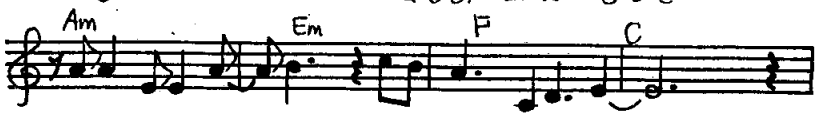
우리를 사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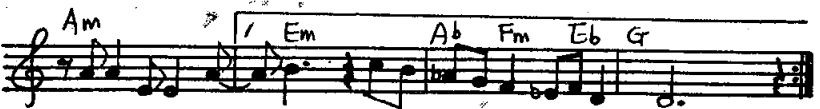
1. 우리 들만난 곳 뜨거운 간방의 땅 너
 2. 아직 꺾진정한 평화는 - 없어도 내



무 도긴 세월 그리움 에 목 마른 날 들
 일 의 승리 를 확신 하 대 맞 - 잡은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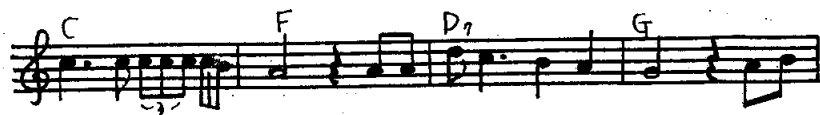
동천의 새 처 - 량 훑은 이 슬 처 -
 길가의 들 처 - 량 훑은 들 풀 처 량 -



우리를 사랑 은 어둠 속에 피 어 난 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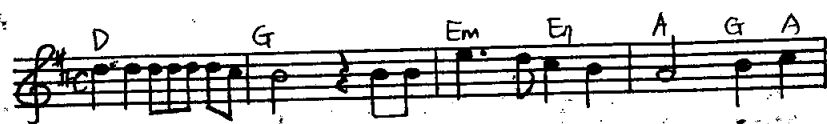
은 아름 속에 피어난 꽃 하여



모진 내바람속에도 새로 열리는 땅에 마침



내 새벽을 피우는 만주의 꽃을 위하여



모진 내바람속에도 새로 열리는 땅에 마침



내 새벽을 피우는 만주의 꽃이여

안 라 산



1. 저 물결속 - 절은 푸름에 붉은 노을이길 때 - 알
 2. 유채꽃 노란 아우성속에 피 닷 함성이 울고 - 성



물이 된 - 산 허 리 - 예수 겁이 쌓였 - 구 나 -
 산 - 포 - 바 위 틈새엔 그 대 외경 돌려온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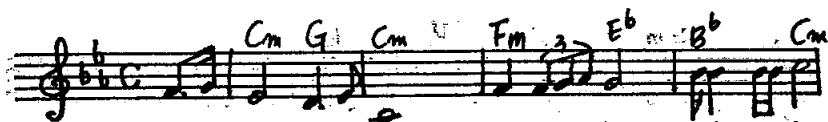


저들 가슴에 - 칼날을 꽃 고 아 - 해방의 땅 그리며 갖
 아 - 어 - 찌 물리서 - 라 통일 조국통일 만 - 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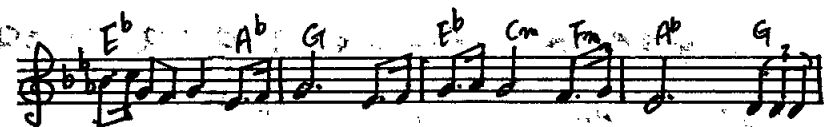


이 - 겨러 쓰러져 - 간 잊지 못할 그 - 대여
 지 - 다 - 쓰러져 - 간 잊지 못할 그 -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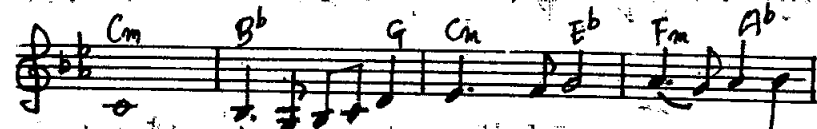
푸 른 곳



내 라 면 좋겠 네 물이-라면 바닷 이라면



여윈 말뚝을 가둔 오 푸른 빛이여 바다의 품이여



라 가-슴-에 꽃 이여 아-프 게



피 흐르다 큰 어 버-린 네 몸 에 붉은 토 지에



네가 없다면 네가 없다면 아아 죽어도 좋 겠네



재되어 흩날리는 운명 이라도 나는 좋 겠 네

통제



1. 휘 물아 지는 거센 바람에도 부 닷혀오는 거센 억

2. 세상살아가는 동안에 - 도 우리가면 저쪽는다



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였다 마주보았다 살

해 - 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라 승리하라라 통



을에는 밝고 통발는 밤 차 디찬 새벽서리 맞으며

일 되는 날 해 방되는 날 희 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우린 만났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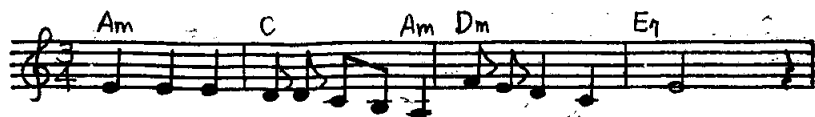
앓을 동지-여 사 랑 영원한 사랑너
 앓을 동지-여 투 쟁 영원한 투쟁너



는- 나 의 동 지
 는- 나 의 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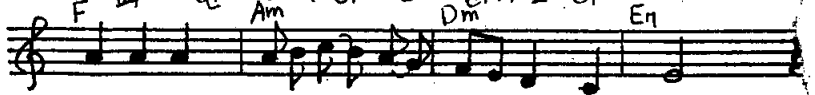
철장안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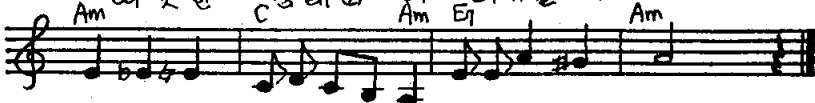
1. 이 슬베 철장에 - 서 물방울 되 어
 2. 으스스름 달무리 - 는 산그늘 짓 고
 3. 아지랑이 일렁이 - 는 높은 담 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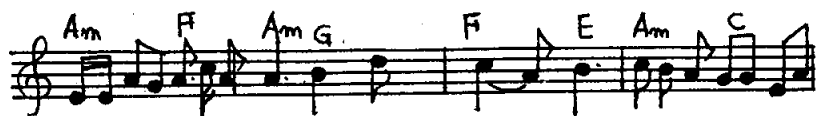
물적한 내마음 - 에 잠겨오 구 나
 절창속 내마음 - 에 잠겨오 구 나
 파 - 란 조국하 - 늘 밝기도 하 다



하 - 안 안개속 - 에 - 피어오 르 는
 희미한 무리속 - 에 - 떠올라 오 는
 따듯한 봄바람 - 이 - 어서불 어 라



그 리 운 그얼굴 - 들 더듬어 볼 까
 못 맞을 그동무 - 들 언제만 날 까
 해방의 내나라 - 야 어서오 너 라



기느러미하나라도 잃지 않 - 고 이세상구석구석



살아가며 끝없이 파란 불꽃을 통 - 긴 다 -



사라진다는 것 - 부서진다는 것 -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

아! 광주여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사이에 파는물만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 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호백은 또 어디에서 떨어져 산산히 조각나 배웠나

하나님도 새씨들도 떠나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랑들만이 아침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잊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파우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했던
아아 통곡별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새와달이 곧박칠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영원히 무뎠 솟아있었어
그러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는 아 자유의 깃발이여
인간의 깃발이여 살과배달 등어리진 깃발이여

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화도처럼 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어 쓸 자연정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자를 메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아 상처받은 죽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이상 이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용봉동에서 자연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아아 우리들의 파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 광주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영원한 해방의 도시여



하나님도 새 떼들도 떠나가 버림곳에



또 다시 부활하는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멀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동국별인 남도의 불사조



아 아 광주여 영원한 깃발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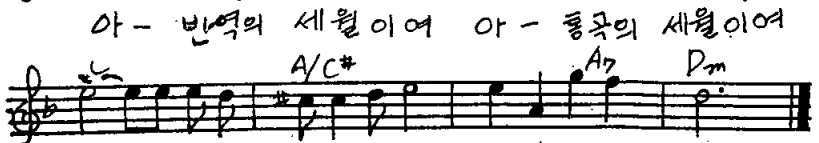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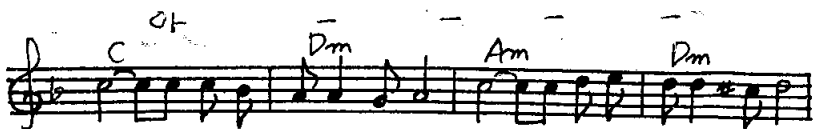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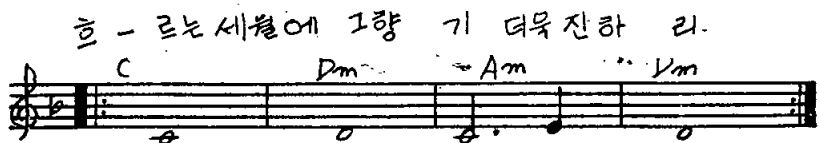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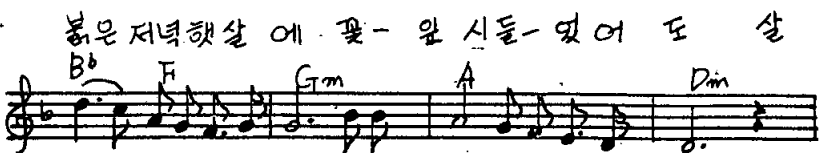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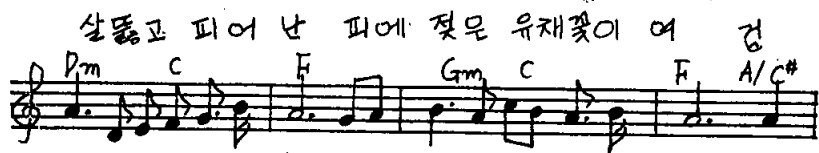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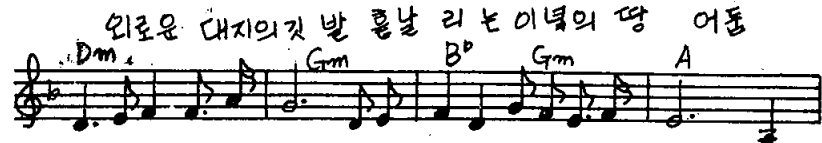


아 아 무등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부활하는 한반도

C Am Em F G
 F. 불은 이산천이 부르다 마지막 생 살아가는
 G7 F C G C Am Dm 잡초
 노 동의 련 장 버가 잘 익어 도 잡초
 만 돌고 돌는 한반도 - 의 피는 불 논두
 령으로 살라고 (아아 - - - - -) 불
 C Am Em F G7 불
 이 산천이 부르다 묵인사슬 끊-자고
 F G7 C F
 너 를 부르네 내 - 몸 내호 들 부르
 G7 Dm C G7 C Am Dm
 네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아-
 F G7 C F C
 부 활하는 내 한반도여 - -

잠들지 않는 밤도



아 - 잠들지 않는 밤도 한라산이여

뜨거운 가슴



그 깊은영암의 늪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



외쳐대는 다짐의 목소리 뜨거운 가슴 속



죽음으로 짓밟힌 목숨 일수는 없다



능욕으로 디럽혀진 순결 일수는 없다



풀어지지 말고가 - 자 쓰러지지 말고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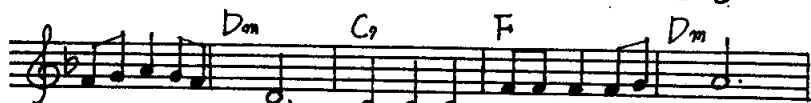


그 날 내 날의 징소리 울릴 때까지 - 지

서 시



죽는 날까 리 하늘을 우러 리 한 점 -



부끄럼 없기 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 도



나는 괴로워 했 - 다 - 별을 -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 - 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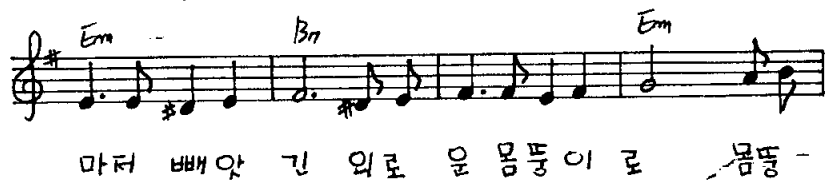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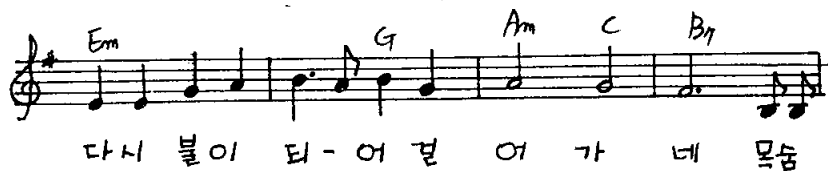


해야 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을 가야겠 다



오늘 밤에도 별 - 이 바람에 스치 운 다

또다시 불로 타오는 그대는





익치며 익치며 또 다시 해방으로 타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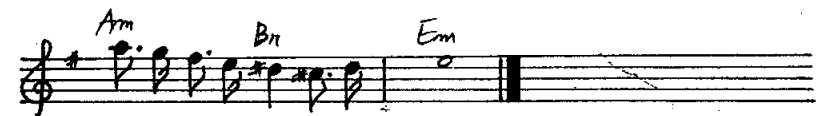
네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세상



그날을 위해 검게 탄 주검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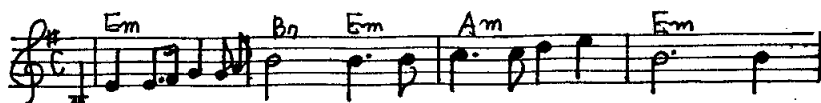


영광을 위해 살아와 살아와 또 다시



불로 타오르는 그대

동트는 그날까지



귀센바-람물아치 는 끝 없 는 어둠 속 자



욱 히연-기만 남 기고 그 대 간곳없 어 도 설



움도- 눈발도 모 두 설 망 도 버리 고 끝내



우리떠-나지 못 할 곳 그 대의자-리는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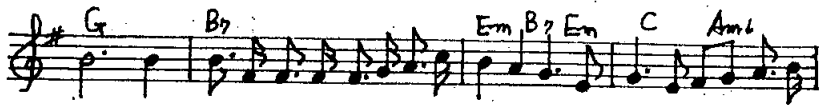
어 둠 이 가--고 세월이롤-러를 러



연기자 웃한 싸움터에 동트는 그날까 지



바람그치는 그날까 지 우리들 가슴



속 불꽃으로 불꽃으로 - 라오를 그대의 자-리는



여-기 그 대의자-리는 여-기 -

그날은 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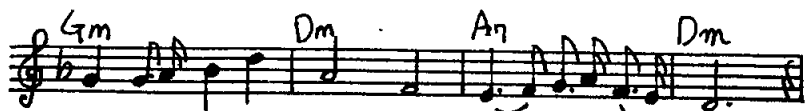
오리라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이땅 한반도에 퍼뜨리는 투쟁이 있는한
해방의 그날은 오리라.
피눈물 흘리며 우리는 형제인 전경에 끌려가지만
저은 그들이 아니라
악독한 군사파쇼와 미제국주의 안개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애국청년으로
해방의 그날을 이나라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로써, 온몸으로 투쟁하리니
동지여 투쟁이다. 복수다.
해방의. 민주의 그날을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피땀 눈초리로 저들을 응시하며,
흐르는 피를 씻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처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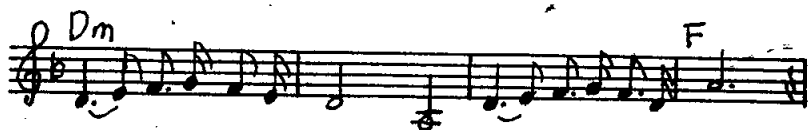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 예 도 이 름도 남김 없 이



한 평생 나가 자 던 또 거운 맹 세



동 리는 간 데 없 고 깃 날만 나 부 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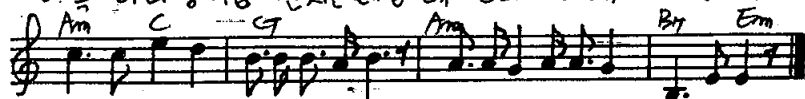


새 날이 올 때 까 리 흔 들 리 지 말 자

전진가 I



1. 낮 은 어둡고 밤은 길어 러 위와기만에 지진형제들 가
2. 눈 도 배앗겨 밤도 배앗겨 잔 취와 수칼에 지진형제들 가
3. 쪽 바리양키놈 판치는 세남 매 판과 파쇼에 지진형제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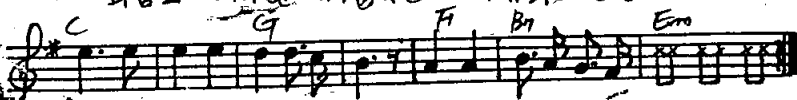


자 가 자 이 어 동 을 품 고 우리 것 우리가 찾 으 러
 자 가 자 이 어 동 을 품 고 우리 것 우리가 찾 으 러
 자 가 자 이 어 동 을 품 고 우리 것 우리가 찾 으 러

전진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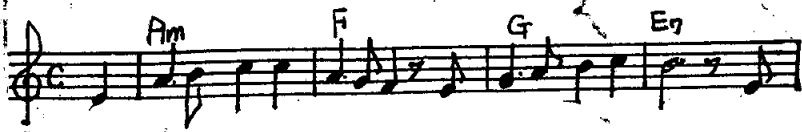


1. 어두운 그림자 하늘 가 려 남몰래 흐르는 저 신음소리
2.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도 이대론 못죽는다 일어서자
3. 외롭고 지루한 싸움속에 자유와 평등평화 찾 으 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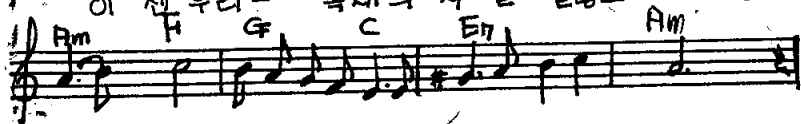


☞ 거 운 때 형제들아 모 두 일 어 서 서 가자⁽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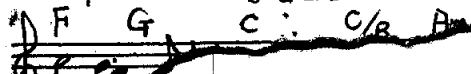
4월 그 가슴위로



1. 이젠우리 - 폭정에 견딜 수 없어 자
2. 이젠하나님 마음 견딜 수 없어 두
3. 이젠우리 - 독재의 사슬을 끊고 민



- 유 - 의 그리움으로 분 노를 뱉는 다
 폭 - 난 조국의 운명 앞 술을 깨닫는 다
 주 - 의 행진으로 발 내 - 딛는 다



짚어진 기쁨

2/4



1.역사의 어둠 속 피되어 흐르는 강
 2.검붉은 죽음에 취해 흔들리는 땅



찬서리에 지고만 어린년의 자유
 비명소리 피냄새 흠뻑러진 광주

251-3077

